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기간_ 8.7 - 10.25

개최장소_ 인천 전역 (주행사장 : 송도국제도시)

주최_ 인천광역시

주관_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후원_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mke 지식경제부 mev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식후원사_ 신한은행 posco&c 한화건설

dcc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www.incheonfair.org



INCHEON

2009
GLOBAL FAIR &
FESTIVAL



한국여성연합회
한글서체



2009
1

Vol. 198 January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1 우리문화

통권 198호 January

02 신년사

04 문화원 이야기

성동문화원
06 군포문화원
08 문경문화원
10 시흥문화원

12 연재

문화원을 듣는다

15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18 특집_ 지방문화원을 돌아보다

문화원과 길
21 문화원 어제와 오늘(강화문화원과 부산남구문화원)
25 문화원의 나아갈 방향

27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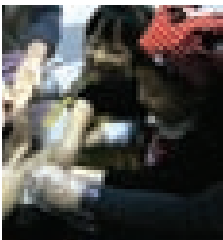
우리 설과 세시풍속

30 기획 4

한국의 제의례

33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5 우리문화 소식
57 신간 소개
60 원장 동정



표지 | 전통세시풍속 동지체험을 하는 실국문화원 어린이들.

등록번호 서울마029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호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주간 채강희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신년사

존경하는 문화원장님,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연합회장으로 취임하여 원장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맡은바 소임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긍정적인 변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국고예산과 기금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버문화축제는 전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공동개최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원 청소년 국토대장정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었고, 국악방송 주관 전국풍물경연대회를 후원하여 지방문화원을 전통문화기관으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특히 복권기금 지원중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사업비 국고보조금 19억 원을 신규 확보함으로써 종전 100개문화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150개 문화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토사 대중화 시범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확보함으로써 향토사사업도 28개 문화원에서 50개 문화원으로 확대하였고, 다문화프로그램 20개 문화원 등을 이미 공모하여 전국 문화원이 한 개씩의 사업을 2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는 농어촌 대상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현장방문사업을 확보하고 지방문화원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특별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이 지방문화원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모든 성과는 전국 223개 지방문화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것으로서 문화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이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소외계층 복지문화 등으로 그 외연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문화조직인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원장님,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

전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우리사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문화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무쪼록 올해에도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최종수

문화원 이야기

성동문화원

요즘 성동문화원을 말할 때 이 사자성어가 빠지지 않는다. 일취월장. 성동문화원에서는 막상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면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며 손을 내젓는다. 다른 문화원에 비하면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참 소리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문화시설이 많은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원은 너무 반가운 존재다. 동네 어르신들은 근거리에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하고 좋단다. 더군다나 요 몇년 사이 그 어렵다는 지자체 보조금도 제법 올릴 수 있었다.

사무국장 공채 1기로 문화원과 첫 인연을 맺은 김길언 사무국장은 처음 문화원에 들어왔을 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한다. 낯설기도 하여 적응 하느라 그렇기도 하고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성동문화원을 꾸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그러나 많



행복한 문화를 만드는 곳, 성동문화원





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었고 특히나 문화원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불평 없이 일해 주어 지금의 성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역에 비해 서울 같은 도시는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기가 어려운 곳이다. 워낙에 문화시설도 잘 되어 있어 웬만하지 않고서는 문화원에서 강좌 듣게 하는 일도 어렵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 보니 방법은 있더라는 것. 바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첫째였고, 성동만의 특색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갖는 것이 둘째였다. 아이템이 없으면 지원금이 있어도 할 것이 없고, 아무리 뛰어난 아이템이 있다 한들 지원금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어 말짱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2007년 성동문화를 창간했고,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인 단오민속 축제도 열었다. 특히나 단오민속 축제는 그냥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힘겨운 행사로 더욱 뜻 깊었다. 제1회 성동구 전통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는 문화원에서 강좌를 듣는 주민 뿐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강좌를 듣는 사람들 모두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2008년에는 이 흐름을 타고 제1회 소월백일장을 열었다.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벌써부터 내년 대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문화원이 아니요,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좋은 문화원이 아니다. 문화원 식구들이 성장을 함께 하는 것, 또한 무엇을 돌려주고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 그것만으로도 문화원의 하루하루는 풍족하다. 바로 성동문화원처럼.



전통춤 강좌
작은 손짓 하나에 모두 진지하다

문화원 이야기

군포문화원



군포설화는 아름다운 ‘문화보석’이다

열망 ...

“제가요... 군포설화로 하는 청소년영어연극 이야기를 듣고 요즘 잠이 안 옵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으면서 군포설화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하지는 단체가 많아졌다. 중학교에서는 군포설화를 갖고 청소년영어연극을 할 것이고 이는 또 군포시국제청소년교류까지 계획이 되어있다. 영어로 만드는 군포설화 만화책을 만화가 특화사업인 청소년단체와 하기로 하고 또 영상제도 구상중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들과 함께 찾아와서 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2007년 땡땡 땡 실버문화학교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받아 단, 중장기적 계획으로 군포설화를 갖고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그로부터 군포는 갑자기 설화의 도시가 된 것처럼 보여 진다. 우리 동네 군포는 문화정체성, 공동체 군포의 색깔이 없는 문화도시이다. 문화를 업으로 하는 우리는 그것을 목말라하고 그러면서 군포의 색깔과 향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시점에서 군포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인연을 맺었던 그 한 해는 그 시점에 열망이라는 단어에 매료 되어있었다 ‘열망...’ 그 열망 속에는 뿌리가 있고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는 문화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 그 시점에...



문희경
군포문화원사무국장

군포설화,
education-art와 조우遭遇하다

군포설화는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군포설화를 갖고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2004년 조사발간 된 군포설화 자료집을 조우하게 되었다. 우연히 발간된 책들을 둘러보면서 그 책을 보는 순간 그리스로마 신화가 떠올랐고 우리의 설화가 그만 못할 것도 없다는, 문화보석을 발견했다는 기쁨과 상상과 그림들이 그려졌다. 그 보석은 '군포설화, education-art와 조우遭遇하다' 라는 기획서로 보석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림들은 2007년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군포설화로, 군포설화그림동화책으로 실루엣구연설화라는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군포설화특강'으로, 군포설화로 떠나는 '상상' 답사로 군포의 청소년들을 향해 찾아가고 있다. 군포설화단이 구성되고, 마당극단 '감투봉'이 양성되고 어린이 눈높이를 맞춘 답사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군포설화를 아름다운 문화보석으로 빛나게 하는 꿈은 우연히 군포설화가 문화예술교육과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d r e a m , s t o r y , h i s t o r y ...

군포설화단, 마당극단이 구성되고 군포설화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매개체를 만나 좋은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어 가고 있다.

군포설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찾자는 포럼은 이런 이유에서 우리 동네 사람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전문가들이 모여 작은 지혜 모으기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군포설화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했다. 내세울 것 이라고는 8개의 문화유적 중에 5개의 소박한 묘지를 갖고 있어 보잘 것 없지만 문화유산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군포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작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로지 그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포럼에서 꿈과 이야기와 역사로 서로 소통하였다. 지금의 세대에 사는 우리가 군포와 대한민국과 세계에 물려 줄 문화유산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어낸 로마의 호머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꿈을 공유했다. 지난 해 군포설화포럼을 마치고 기축년 새해 들어서 군포설화로 만든 청소년영어연극 워크숍과 공연을 하였다. 군포설화는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군포설화를 갖고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설화, 설화 속 지명유래, 문화유적, 옛 문화를 알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수련수련 다닌다.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 우리 동네 마당, 우리나라의 마당, 세계의 마당으로 나가게 되고 그 이야기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되어 역사로 남을 것이다.

"기축년의 꿈과 이야기와 역사는요... 군포설화로 하는 청소년영어연극, 군포설화영어만화책, 군포설화 영화 만들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원 이야기

문경문화원

새로운 문화세대 - 실버

시혜 위주의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는 고령화 사회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농어촌지역의 읍면은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농촌의 들판에서 가장 큰 일꾼은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의 노인들임을 목격한다. 장묘문화가 차츰 변하고 있어 지금은 덜 하지만 산소를 쓰는 산역에 가보면 농촌의 60~70대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쟁반을 들고 음식을 나르는 일까지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접근법은 노인들에 대한 시혜 위주의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종 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재가 노인들을 돌보는 정책들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다보니 돌봐 줄 젊은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돌봐주는 노인들을 딱하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앞서버리게 된다. 돌봐줄 어른들을 보노라면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이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군이면서도 최대의 희생자들인 지금의 노인들. 자식들 많이 낳아 자신이 못 배운 것을 한풀이라도 하듯이 뻘 뻘하게 공부시켜 하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기다리고 기대하던 날이 수십 년. 자식들은 하나 둘 일자리 찾아 떠나고, 금의환향할 줄 기대했던 그놈들은 제 먹고 살기 팍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노인들의 공헌욕구를 충족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새로운 세대, 쓸모 있는 세대로 바라보아야할 단계에 와 있다

곽해 돌아오기는커녕 안부조차 모르기 일쑤다.

그들은 이렇게 내팽겨쳐진 것이다. 그간에 자식 사랑을 입이 닳도록 해 왔던 그들이기에 어디 하소연할 수도, 누구 붙들고 말할 수도 없는 지승자박이 그들을 지금 초라하고 측은한 노인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의 복지정책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문 경 문 화 원 의 사 례 와 노 인 을 위 한 프 로 그 램 개 발 의 필 요 성

그러나 그것만으로 노인문제, 고령화 사회를 접근하기엔 노인들의 욕구와 능력이 넘쳐난다. 최근 들어 문경문화원은 '실버 문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0여 명의 노인들이 줄을 지어 등록을 했다. 노인들의 면면을 보면 젊어서 한 때 한 칼 하던 분에서부터 말없이 희생만 해 오던 분까지 그 배경이 다양하고, 능력이 다양한 사실을 알았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어떤 이는 능력을 발휘하였고, 어떤 이는 젊고 까다로운 이 이상으로 판지를 걸고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어떤 이는 묵묵하게 자리를 정리하기도 하고, 설거지하기에 여념이 없는 분도 있으며, 어떤 이는 자기 만 깔끔히 정리하고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 같이 뭔가를 해 보겠다는 새로운 욕구가 충만하였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구전하던 민요를 전수 받고 이를 다시 새로운 세대와 시민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들에겐 누워서 떡먹기인 셈이다. 그들이 젊어서 했던 소리이며, 그들이 젊어서 했던 다듬어질이며, 물레질이며, 명 짓기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유물들은 모두가 사

라져 버렸고, 이제 그들 아니면 이 유물들은 영영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자신들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을 찾은 것이다. 이제 그들은 복지의 수혜 대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활동가, 매개자, 지도자로 활동할 역할을 찾은 것이다. 무기력, 소극적, 수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스펙트럼을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느 세대 보다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구, 의미 있는 역할을 찾으려는 욕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싶은 욕구, 새로운 능력을 갖추려는 욕구 등 공헌욕구를 찾은 것이다.

노인이 되면 점점 돈 쓸 일이 줄어들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혜성 복지정책으로도 그들의 노후 경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노인들의 공헌욕구를 충족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새로운 세대, 쓸모 있는 세대로 바라보아야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그들의 다양한 배경과 욕구를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 성 환
문경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이야기

시흥문화원

세월의 힘



연구자
시흥문화원 간사

제목이나 내용이 분명히 남아있지 않은 영화 중 한 부분을 가끔 말하게 된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쉬운 장면이다. 외국의 한 사무실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는 머리가 희끗한 직장인의 중년여인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뚱뚱한 몸매에 굵뚱 동작, 심드렁한 음성이지만 편안하고 능란하게 사람을 대하고 업무 처리를 한다. 아직도 여직원을 사무실의 꽃이라 표현하는 정서인 우리 사회 분위기로는 그다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장면이다.

영화의 주변 설정일 뿐인 짧은 그 장면만을 오래 기억하는 것에 그다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머리가 희끗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도 어찌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내 모습을 미루어 상상해보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주위와 사회의 반응은 어떠한지 나를 짐작해 보기도 한다.

헤아려보니 지방문화원에 근무한지 햇수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자랑스럽지도 그렇다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경력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시간의 쌓임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만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성과나 실적을 따지는 일이나 그에 대한 책임감도 그다지 자각하지 못했다. 부족한 사회성으로 사람을 만나 대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커 일의 즐거움과 보람을 충분히 맛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한

초심, 새해, 첫 만남, 이런 단어가 주는 깨끗한 시작을
잊지 않는다면 20년이 지나도 이제 막 출발하는
여행의 설렘과 각오를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적응하며 걸어온 과정을 보면 문화원 업무가 내 적성과 잘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동안 네 분의 원장님과 사무국장을 모셨으며, 인연이 닿았다 스쳐지나간 직원들은 열 손가락을 넘는다. 이러한 열거가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부터 그런 변화의 순간과 맞서는 일이 더욱 힘들고 어렵다. 조심스럽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다. 왜?라고 물으면 선뜻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겠지만 어쩌면 그간 지나온 세월의 경험으로 살피게 되는 눈치 보기일 지도 모르겠다. 혹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갖게 되는 자격지심과 비슷하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듯이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무거운 마음과는 다르게 나이와 더불어 축적된 경험이 주는 또 다른 여유를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다.

며칠 전, 8-9년 쯤 전에 임원으로 활동하던 이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당시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잠시 후 들르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정말 잠시 후 문화원을 방문한 그는 날 보며

“아니, 아직까지 다녀요 그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러게나 말이예요.”라고 대답했다.

불과 2-3년 전만 같았어도 그 말은 내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집에서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하며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없게 만드는 경제생활의 빈곤함까지 불러내 닦하고 스스로를 북아대며 우울한 한동안을 보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난 나이의 함께 사려 깊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다행히 인정하고 알고 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상처나 비난으로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타성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지 늘 점검하려고 애쓰고 있다.

새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식구를 둘러보니 아직 채 한 달 안 된 직원이 있고 사무국장도 6개월 조금 넘었으며 나머지 직원이 이제 11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인연이 주어진 사람들

과 길게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새로운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각자 다른 그들의 개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보면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즐거움까지 더해지는 것 같다.

초심, 새해, 첫 만남, 이런 단어가 주는 깨끗한 시작을 잊지 않는다면 20년이 지나도 이제 막 출발하는 여행의 설렘과 각오를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가 일생과 같다는 말이 있다. 아침은 태어나는 것과 같고 젊음의 오전을 지나서 오후로 기울며 장년 노년이 되고 해 지는 밤과 함께 인생이 마무리 되는 것과 같다고 볼 때,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사는 일이야말로 곧 인생 전부를 잘 살아낸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고 있다.

얼마 전, 시청의 문화원 담당과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바뀌어 수인사차 들렀다. 요즘 시청도 여인천하가 돼가고 있다며 농담이 오갔다. 꽃밭에서 좋겠다는 말에,

“꽃도 꽃 나름이지.” 대꾸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다.

다 같이 웃어넘기기는 했으나 가히 개운치 않은 여유를 남긴 우스갯소리였다. 나를 포함해 네 명의 꽃(?)이 있었으나 씩씩한 웃음 뒤끝을 시원하게 털어버리지 못했다.

“간사님, 받아칠 적당한 말 뭐 없어요?”

물어오는 직원에게 그냥 웃어 보였다. 하찮은 농담, 우스개, 익살에는 그저 그에 걸맞도록 가볍게 웃어넘겨야 예의(?) 아닐까. 알려진 노랫말에도 있듯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 아니, 꽃보다 아름답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묻게 되는 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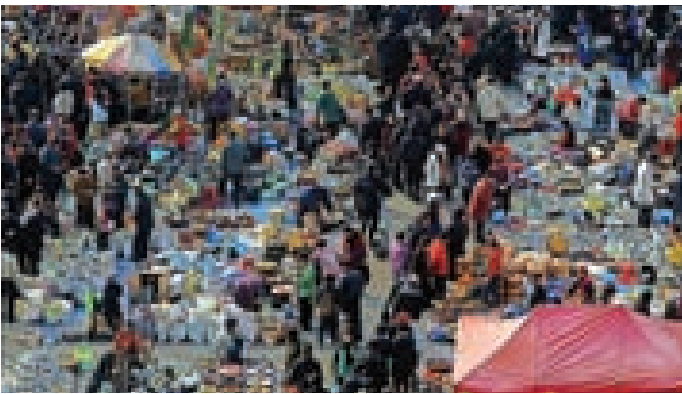
지역 역사칼럼

성남^{城南}의 역사 뿌리

도시 개발의 선두 대열이라 할 수 있는 성남은 현대 도시로서의 짧은 역사를 지닌 시승격 36년 나이테로 젊어졌다. 하지만, 성남시민들조차도 우리 고장의 뿌리를 모르는 이가 의외로 많다. 현대인들은 도시 산업사회의 삶이 다양하여 생존경쟁에서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상급학교 진학 시험과목에도 넣지 않고, 취업 시험과목조차도 비중을 두지 않는 현실에 더구나 지역 마을의 역사 이야기는 한낱, 묶여 있는 책갈피쯤으로 생각되고 있거나 않을까?

성남시는 서울 한강 남쪽에 터를 잡았던 2천여 년 전의 <온조 백제>에서 역사 뿌리를 키워온 산 촌락 농촌이었다. 이 땅이 해방된 이듬해에 경기 광주군 종가(宗家)에서 갈라진 '성남출장소'가 문을 열면서 <성남>은 남한산성 남쪽 동네)라는 데서 출발했다. 아득했던 옛날 백제 건국의 틀에서 뿌리 찾기가 어려우며, 우리 마을 이야기는 광주군 관할 동네에서 원뿌리가 나타난다. 한강과 위례, 지금의 탄천을 에워싸고 있는 남한산성 숲속과 청계산 자락, 빌딩에 에워싸인 앞뒷산 언덕, 비탈 계곡을 터전으로 이 지역 여러 성씨들의 조상 족보 이야기에서나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城南



모란시장 전경



이경류 장군 묘

경기 광주군 종가에서 갈라진 ‘성남출장소’가 문을연면서 ‘성남시’는 출발

성남이라는 이곳이 서울 한강의 대도시와 더불어 일정 부분을 감당해 나가는 발전된 모습

은 누천 년 동안, 최근에 와서야 처음 있는 일이다. 근현대사는 물론이요, 조선·고려시대 또한, 삼국시대 옛날의 기록상 세촌(중부)·대왕·낙생·돌마 네 시골 마을이 늘, 낙향 선비들의 은둔처로서 조상 묘역을 돌보는 여러 세거성씨의 농경·목축업 위주의 농촌민 취락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뛰어난 인물로 출세를 하려면 선대로부터의 고향 논밭을 등지기 일쑤였으며, 예전의 권문세가 후예라 하더라도 한학 독서로 소일하면서 조상과 웃어른들 잘 섬기는 마을 인심이었음직하다. 간혹, 십년 마다 한 두 차례 일어났던 민란·권력암투·인접 강대국 침략 소용돌이라도 발생할라치면 노동부역, 방어군사로서 백성된 노릇에 충실할 따름이었을 것이다.

온조왕이 어머니 소서노 그리고, 열 명의 부하장수들과 수천 명 집단 유민으로 남하하여 터를 잡았다는 한강 남쪽지역 하남 이성산성 둘레의 <한성백제

> 건국이야기를 통해 진취적 용맹성을 짐작케 하며, 평화로운 나라의 백성을 다스려 보자는 온조와 소서노의 건국 야망이 서린 이곳 성남은, 아들 비류와 온조를 도왔던 천하여걸 소서노(‘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제왕일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여인’ / 단재 신채호 <조선상고사>)가 터전을 잡은 한 자락이다.

이에 한강으로 흘러드는 성남시 ‘탄천(삼내·술내)’ 16킬로미터의 물길 주변 들판이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신화 속 역사에서도 농경생활로 끊임없이 대가 이어졌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 묘택(사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충효·청백리 큰 인물들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성남 역사의 흔적은 향토 문화 유산으로 오래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내란의침이 극성부리던 고려시대, 80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혔던 몽고침탈에 있어 성남 관할의 광주군민 항전 이야기 또한, 가슴 뭉클한 스토리아닐 수 없다. 1231년 당시, 광주부사 <이세화 묘지명>에서 ‘광주백성들은 오랑캐 군사들이 포위·공격하였으나 능히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니’라는 고종 임금 때 적장 살리타이 섬멸작전의 이야기

가 <고려사> 권80에 근거함으로써 이에, 남한산성 일원의 광주·강동·강남·하남·성남시 주변 지역이야말로 '나라 사랑' 고장 중에서도 영원히 빛날 호국의 성지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말 정치가·학자로 대표될 만한 중원구 하대원 등의 둔촌 이 집(1327~1387)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역사와 일제 식민지 555년의 기간 중에 정묘·병자호란 때 남이 흥·이상안 무장들 순국 자취, 삼학사의 충성 발자취, 임진·정유왜란 때의 분당구 중앙공원 안의 이경류 순국전사 이야기가 다름 아닌 청사에 우뚝한 민족정기요, 한국사상의 지렛대와 다르지 않다. 이 외 대한제국 근현대사 안에서 항일 의병장 남상목·윤치장 선결과 초치일관했던 의절로 일생을 다 바친 일제강점기의 3·1만세운동 애국자 한백봉·한순회·남태희 등 시대별 큰 인물 숨결이 성남시 근간으로 남아 있어, 이들 뜨거운 애국혼령의 흔적들은 오늘날 성남 향토역사의 뿌리가 된다. 1945년 해방 이후 60여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피 흘렸던 순국자 혼령들과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떠받친 정치가·학자·문인 외 효도 덕행의 삶이 청계산·영장산 능선에 유택으로 남아서 성남시 전통의 문화와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뜨거운 애국 혼령의 흔적들은 오늘날, 성남시 향토역사의 뿌리가 되어

현 100만 명을 육박하는 성남시민들이 1960년대 후반에 서울인구 15%나 되는 55만 명을 분산·이주시키기 위해 주택단지 건설로 탄생된 성남의 현대사회, 신도시 역사 중에서 지속적으로 80년대 분당과 21세기 판교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통해 그야말로 신도시 정책의 시험장 터널을 거쳐 왔던 시민들이다. 40여년 역사를 가진 지금의 성남시야말로 전국 각 고장에서 모여진 선망

의 정원풍 명품도시가 되었다.

성남시는 경기도 안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자랑하며, 두 개 노선의 지하철이 매 5분 간격으로 오고가는 선진 문명도시이면서도 이곳에는 전국 제일의 명소로 손꼽히는 '모란 민속시장'이 열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누리고 사는 특이한 신도시다. 최근,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접어든 것과는 같이 성남시의 명성은 전국 10위권 도시에 꼽혀져 교육기관·의료시설·백화점·공원 쉼터가 곳곳에 자리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역시, 전국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이면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세종연구소·새마을중앙연수원·한국토지공사·한국주택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등 전국 국가기관들이 즐비하여 별난 신도시로서 손색이 없다. 그밖에 청계산 자락에는 예전의 통신수단 봉수터가 있으며, 옛날에 한양과 3남 지방을 오가는 나들목은 오늘날에도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설치돼 있다. 요즘도 판교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백제시대 이후의 갖가지 유물이 발굴되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신도시 성남의 역사는 <운조백제> 도읍지 한 자락으로부터 2,000년 전통문화를 이어 온 긴 시간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춘 섭 성남문화원장

“내년에 또 할거쥬? 문화원장님 약속허유”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서산 고북면

한겨울 추위가 잠시 멈춰 버린듯 유난히 포근했던 지난 1월22일 서산시 고북면에서는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 주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공연이 있었다.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게 복주머니(키퍼 증정)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살풀이와 한량무 등 전통춤과 민요공연, 대중가수 공연, 각설이타령 등 2시간동안 어르신들과 한데 어우러져 진행되었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복은 준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면서 “여기 오신 어르신들의 밝고 해맑은 모습을 보니 복을 많이 받을 분들”이라고 덕담을 했다. 이날 공연에는 고북면에 사는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이정주 고북면장과 김원경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공연이 끝나고 구부정한 허리를 연신 손등으로 토닥이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느릿느릿 면사무소 강당을 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살 깊이 팬 얼굴과 갈퀴같은 손마디에는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온 흔적이 웅이처럼 박혀 있었다. 그러나 이날 만은 모두들 달덩이 같은 환한 웃음이 떠나지를 았았고, 그 모습은 오래도록 가지지 았았다.

공연을 본 할아버지 한분이 서산문화원장에게 불쑥 한마디를 던진다.

“내년에 또 할거쥬? 문화원장님 약속허유”





포복절도 에피소드 하나.

한 어르신이 서산문화원 직원에게 “왜 공연을 하는 거냐”며 몇 번을 물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데, 행사에 불만을 갖고 따져 묻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는 것. 그러나 이어진 한마디가 모든 궁금증을 한방에 날려 보냈다.

“악은 언제 판대유?”(반응이 늦은 사람들을 위해 부연하면 이 어르신이 아마 몇 번은 경험했을, 악을 팔기 위한 악장사 공연으로 착각한 것.)

이날 면사무소 한쪽에서는 영정사진을 미리 찍으면 장수한다며, 사진을 찍어줬다. 어르신들은 “어이 사진찍으러 가. 널 모래면 갈 텐데 미리 찍어둬”라며 농담을 즐기기도 했다. 장수사진이라고도 하는 영정사진에는 90명이 찍었다.

한편 베트남 부인과 함께 온 다문화가족도 있었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네가 아버지·어머니·오빠·남편 역할까지 하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했다.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 한번 못해서 우는 거여”

공연의 절정은 걸쭉한 입담으로 어르신을 울리고 웃겼던 ‘은봉이와 거시기’라는 예명의 부부 각설이었다. 흥을 돋우기 위해 각설이가 한 할머니에게 나이를 물어 83세라고 하자 “나는 8학년4반(84세)이여”라고 좌중

을 웃겼다. 그러나 젊은 각설이의 반말 농담이 거슬렸는지 할머니는 불편한 기색이 감추지 않았다. 들었던 분위기는 일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각설이의 ‘어매’라는 노래를 들던 이 할머니가 갑자기 두 눈을 감싸고 흐느적 거렸다. 아내 각설이가 할머니 눈물을 닦아주며 부둥켜 안았고, 할머니는 목매운 소리로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 한번 못해서 우는 거여”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행사 홍보를 위해 한국 예술종합학교 등 8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산 행사장에서 만난 미술을 전공한 한 블로거는 8명이 각각 1개 도를 맡아 공연단과 함께 이동하면서 블로그(<http://blog.naver.com/win02009>)를 운영한다고 했다. 그날의 행사가 생생한 사진과 글로 인터넷에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으로 ‘복주머니 문화봉사단’을 꾸려 40일(1.5~2.13) 동안 전국 240개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농산어촌을 찾아가 문화를 통해 희망과 웃음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경기, 강원 등 8개 도에 각 1개팀씩 운영중이고 2월에는 제주를 방문한다.

문화 봉사단의 이름도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복주머니’라고 하고, 프로그램도 ‘웃음복주머니’(연극·인



형극·마임·노래 공연 등), '전통복주머니'(국악·민요·사물놀이·한지체험 등), '미술복주머니'(서예·미술체험 등), '체육복주머니'(생활체육·건강검진 등)로 구성하였으며, 문화부 소속 기관의 찾아가는 박물관·영화관뿐만 아니라 전문 사진작가까지 함께 나섰다.

평소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의 복주머니를 전달함으로써 한 해 동안 문화를 통해 희망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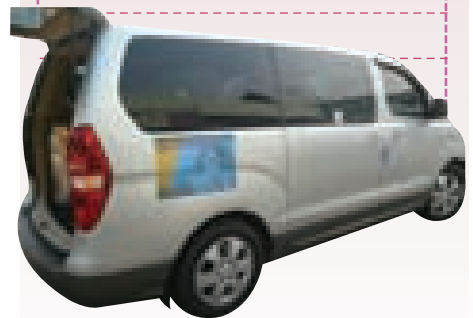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민문화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완료되면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명찬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장

서산 문화원은 전국에서 드물게 안내 15개 읍면동에 분원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산문화원과 고북면(분원장 엄기택) 분원이 함께 준비했다. 또 2월 9일에 같은 행사가 있는 팔봉면(분원장 김완중)에서도 사전준비를 위해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산문화원 직원들이 총 동원되었다. 아침 일찍 행사장에 나가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웠다는 안지현 과장은 어르신들을 행사장까지 안내하고 의자를 나르면서도, 웃는 낯으로 일일이 떡을 싸주기도 했다. 행사를 총괄준비하고 행사차량을 운전한 김영철 사무국장은 "전국 문화원에서 지방비로 업무차량을 산 곳이 있냐"며 지난해 연말 도비와 시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문화원 전용차량 한 대를 구입했다고 한다.



문화원과 길



허흥범 경희대 사학과 박사

■ 해가 바뀌었다. 무자 서생은 바삐 뒀안길로 사라졌고, 기축 한우는 봄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봄, 필자의 근무처로 일과시간에 전화를 하면, “과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과천문화원입니다. 문화는 미래입니다.” 라는 녹음멘트를 들을 수 있다. 이 멘트는 내게 문화원의 존재 의의를 종종 환기시킨다. 더불어 문화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곤 한다. 지방문화원(Cultural Center, 이하 문화원)이 걸어온 길과 갈 길은 어디인가?

■ 문화원은 오랫동안 지역문화 지킴이로서 존재해왔다. 문화원은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 법인이다. 2009년 1월 현재 전국 시군구에 224곳의 문화원이 있으며, 광역시도에 16곳의 지회와 중앙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문화원 회원은 약 12만 명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인 문화원이다.

문화원은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지역문화 활동 및 진흥의 구심점으로, 지역문화 예술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화원 이외에 지역의 문화시설 및 기관으로는 문예회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재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주민자치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각기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원과 기타 기관의 차별성은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 기관은 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문화원은 자치단체의 보조와 함께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 문화원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1940년대 후반부터 지역민의 의지로 탄생한 자생적 민간 문화단체이다. 문화원의 효시는 1947년 10월 9일 개관한 강화문화관이이다. 강화읍 관청리 전 곡물협회관(구 강화버스터미널) 건물을 사용한 강화문화관은 개관당시 1만 6,000여 권의 서적과 유물, 공예품 등 수 천점을 수집하여, 해방 이후 문화 재건의 방안으로 지방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강화군수 윤갑로를 비롯하여 유지영, 박창양 등이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강

화문화관은 초기에 도서부, 박물관, 사업부를 두었다. 이에 강화문화관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도서, 기금, 박물관 등의 찬조로 1940년대 후반 열악한 지역문화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듬해 5월에 발행된 『향토지 강화(江華)』 춘절호(1948)는 “이 기관의 육성책임은 관(官)이 아니요 지방, 민간의 것이 되어야 되겠고, …… 활발히 지방문화를 전개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장차 거대한 ‘문화의 전당’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강화문화원의 개관과 『향토지 강화』의 발간에서 우리는 문화원 출발의 키워드를 자발적 민간 문화단체의 결성, 지역문화사업의 전개, 잡지의 종합문화 지적 성격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오늘날도 이 세 가지는 문화원의 기본 성격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강화문화관의 개관에 이어 진주(1949), 밀양 · 담양 · 경남 고성(1950), 용인(1954) 지역을 위시하여 각 지역의 문화원이 속속 개원하였다. 전후(戰後) 1950년대 지역에서 문화원은 유일한 문화 공간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했다. 초기 문화원은 문화관, 문화원, 공보원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었다. 한국전쟁 후 원조경제시대에는 서울과 지방의 주요도시에 설치된 주한 미국공보원(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의 지원과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공보원의 영사기, 스크린, 서적 등 기자재의 지원을 받아 시군지역에 사설 문화원이 70여 곳에서 발족되었다. 당시 문화원은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였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없이 지역문화의 계승과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역문화활동이 문화원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문화원은 78곳에 이르렀고, 중앙조직으로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창립되어 전국적인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원은 사설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갖추게 되었고, 각 문화원마다 년 10,000

원씩 정부보조금이 지급되었다.

■ 1970~80년대는 워낙 경제개발의 시대였다. 문화원은 운영이 부실하다는 정부 감사로 1972년부터 1990년까지 정부보조금이 전면 중단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1973년부터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과 개발로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 시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1970년대는 문화원의 역사에서 전통문화선양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문화와 향토사 연구의 기반을 다진 시기이다. 문화원 산하 향토사연구소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향토사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27개 문화원의 활용방안이 재검토되었고, 1984년부터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양서읽기운동과 다도선양문화운동을 지원하였다. 문화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문화원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로 지역의 전승문화의 발굴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각 지역의 시군지 편찬이 본격화되었는데, 문화원 관련 향토사가들의 참여가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는 오늘날 문화원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는 문화원이 한 단계 도약한 시기라 하겠다. 1994년 7월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원은 사단법인에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지역민의 문화향유 욕구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한다. 문화원은 1995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20개원이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는 205개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지역내 타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증가에 따라 문화원의 존립 근거를 위협 받기 시작한 시기이다.

■ 이제 우리 사회는 문화향유권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은 동시에 지방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세방화(世方位, Glocalization)는 문화인력이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개념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방화 시대는 비단 경쟁력의 제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경제와 문화가 희비쌍곡선의 함수관계로만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2007년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원 60년 기념 224개 지방문화원 문화비전 선언식'을 갖고, '2007 문화비전 선언'에서 지역의 문화주체의 결집에 주도적 역할, 다문화시대의 매개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속적/장기적 활동 추진 등 6개항의 실천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0월 10일을 '문화원의 날'로 제정하고, 1사 1문화원 결연 운동, 우리문화 글쓰기 운동, 실버문화학교 활동 강화 등 지역문화의 전승과 보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여가시간의 증가, 문화향유권의 논의, 먹을거리를 비롯한 참살이 현상, 문화단체의 증가 등 최근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원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다문화 가정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등은 문화원의 역할을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연구'는, 지방문화원의 문제점으로 ▲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유연성 부족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 설정의 부족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 주체의 통합 및 연결 부재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증가, 활동 회원의 확충, 최소한의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전문성의 제고 등은 각 문화원이 넘어야 할 최소한의 장벽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일상적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지난 60여년 문화원이 걸어온 길을 살피면서 미래를 생각할 때, 자생적 민간문화단체로 출발한 문화원 조직의 그 자발성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성장한 한국 현대사는 국내외적으로 제3세계 국가의 성장모델이나 발전전략으로 종종 이야기되곤 한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궁핍한 시절에도 자발적/자생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세우고자 한 초창기 문화원의 활동도 엄존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지역문화의 지킴이로서 문화원은 실버세대 및 다문화를 포괄하여야 하며,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원은 지역민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곳, 지역민에게 언제나 찾고 싶은 곳으로서 사랑방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지키고 평생교육과 문화를 나누는 지역 문화의 중심(中心)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눈 속에 핀 매화가 수줍게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이 때, 꽃샘추위 아직 일렀으니 탐매(探梅)할만 할 것이다. 이 좋은 계절에, 조선후기 실학자 여암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서문에서, 길의 주인은 누구냐고 우리에게 묻고 답한다. "길은 본래 주인이 없으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여암 선생은 지역문화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되묻는다. 지방문화원의 길 길은 어디인가?

특 집 지방문화원을 돌아보다

문화원 어제와 오늘

강화문화원과 부산남구문화원

전국의 문화원만 해도 이백 개가 넘는다. 그 문화원의 시작과 현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감히 문화원을 한번 본다고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발 디뎌 서있는 지금 문화원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

첫 문화원인 강화문화원과 현재 마지막으로 문화원 설립 인가를 받은 부산남구문화원 그들의 사정 속으로!



강화문화원의 우광덕 원장



강화문화원 식구들 좌로부터 류중현 향토사연구소장, 김귀남 간사, 직원 안지영, 우광덕 원장, 신진욱 팀장, 양태부 국장

문화원 그 첫걸음, 강화문화원

강화의 겨울바람이 차다. 예년에 비해 눈은 적지만 그래도 바닷바람이 돌고 가는 섬인지라 도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강화의 겨울, 어떤 이야기들이 그 바람을 타고 돌지 귀 기울여 볼 수밖에 없다.

강화문화원은 새해 들어 더욱 바쁘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성단에 제를 준비했다.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진행한 문화원 가족들 덕분에 큰일을 치러냈다.

“문화원 원장이라는 게 그저 은퇴한 사람이 들어와 앉아 예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화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도 더러 있어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곳이 얼마나 바쁜 곳입니까. 공휴일이면 더욱 바빠지는 게 문화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른 데 못지않게 열심히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죠.”

그 열심으로 강화의 유적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우광덕 원장이다. 어떻게 하면 문화원이 지역에 더 많은 것을 퍼줄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쉬는 날도 늘 뭔가를 궁리한다는 그다. 문화원이 존재하려면 혼자 잘나고 평소 오페라나 클래식 즐기는 우원장은 ‘고전’을 즐긴다.

“앞으로 가려면 옛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은 시간을 넘어 영원하죠. 그런 맥락으로 전국 문화원 식구들에게 우리 문화원은 그런 존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고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분발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 잡게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우 원장은 제일 중점을 두는 일로 강화의 역사를 아는 일이라고 꼽는다. 세계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별한 문화를 발굴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문화가 지역 경제까지도 더불어 책임질 수 있다고.

“강화의 문화를 이해하고 꽃피우는 문화원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정치 경제할 것 없이 모든 걸 이끄는 것은 문화거든요. 문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주위의 놓고 먹고 즐기는 것 모두가 될 수 있지요. 우리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즐기는 문화 만들기에 더욱 애쓰려고 합니다.”

이들은 ‘최초 문화원’의 이름을 달아, 그것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더 뛰어나다고 거드름 피우는 일 따위는 전혀 모른다. 다만 그 첫걸음을 되뇌며 다만 더 열심히 뛰겠노라고 다짐한다. 강화문화관. 그것은 문화원 아버지요, 어머니의 이름이다. 1947년 10월 9일 강화에 뿌려진 이 한 톨의 씨앗은 2009년 현재 224그루의 나무를 키워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성장할 이 나무에 물을 주어 열매 맺어 씨앗을 거두는 것은 전국 지방문화원의 몫일 거다. 그 만발한 숲에 강화문화원이 있다.

강화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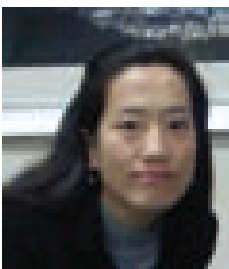
부산남구문화원

부산에서 보내는 편지 한장

안녕하세요, 늘 반갑고 그리운 문화원 가족 여러분!

전국 224번째 문화원으로서 2007년 12월 18일자로 설립인가를 마치고 2008년 3월 3일부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부산남구문화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無에서 有를 창조해나간다' 는 열의 가득한 마음가짐으로 2008년 문화원 원년을 부단히도 바쁘게 보낸 저희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모든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무한한 애정으로 돌보아주신 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원이 없던 부산 남구에 문화원이 생김으로써 부산 남구 주민의 결속력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서일까요? 문화강좌 접수 첫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문화원 건물 계단에 줄을 서서 접수를 기다리는 어머님, 아버지들을 보면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 중에 있답니다. 사느라 바쁘고 묵혀두고 늦어졌던 배움에 대한 욕망을 문화원의 저렴하고도 수준 높은 강의로 해결함에 있어 국가로부터 무언의 보답을 받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수강생들을 마주하면, 실무자로서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할



김지민 부산남구문화원 사무차장



니다. 이런 역할을 전국 225개 문화원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문화원의 존재 이유일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부산남구문화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남구문화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3개월씩 세 차례의 문화강좌를 시행하여 총 30개 강좌에 550여 명의 회원들이 수강을 하였으며,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우리 문화원의 첫 책자이자 부산 남구 향토사 교육 자료집인 '우리 고장 뿌리를 찾아서'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각 문화원 및 관내 각급 학교, 유관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문화해설사를 동행한 두 차례의 문화답사는 지역주민의 폭발적인 호응과 함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 남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국내 첫 국제결혼가정 자녀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다문화가정문화탐방' 을 실시하여 사회의 소외 계층과의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바 있습니다. 이는 문화 소외 계층에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교육적, 문화적 소외 문제 해소를 도모하게 된 작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문화원 원년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부산남구문화원 알리기' 에 대한 대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기축년에는 더욱 옹골진 사업들로 내실 있게 발전해나가는 한 해를 만들고 싶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땀 저희에게 전국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도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는 것이겠지요.

♥ 가족 여러분~~ 부산 남구로 오이소! 보이소! 연락주이소! (...*)



부산남구문화원 가족들.
좌로부터 김지민 사무차장, 성재영원장, 이문영 사무국장.

문화원의 나아갈 방향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과제



김영번 문화일보 문화부 차장

문화의 세기, 그 경쟁력은 지역문화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문화가 기업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2000년 초 거세게 불었던 한류 바람으로도 입증됐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론 산업사회에서 정보기술(IT) 및 지식산업이 기반이 되는 문화사회로 이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화사회의 기저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느냐의 문제가 깔려 있다.

한 국가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문화가 지역민들에게 뿌리내리는 것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독창적이어야 한다.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은 이를 감당해낼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실버문화 창출에서 지방문화원은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외와 배려의 대상에 머물러 있던 노령층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해내는 문화실버족으로 거듭나게 된 데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해 노령층의 문화 역량을 발굴·개발하고, 문화를 통해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지역과 연계해 실버세대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은 향후 한국경제의 진퇴를 판가름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착안해 지방문화원에서 실버 세대에게 지역의 문화리더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아마추어 아티스트로 커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실버문화학교는 1단계에선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2단계로 교육성과를 지역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며, 3단계에선 소득창출까지 실행한다는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원과 향토기업 결연

지방문화원은 또 향토기업과 결연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문화원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또한 지방문화원과 출향 기업인과의 유대감을 강

화하고, 기업이 지역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기업모델을 확립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

문화일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 운동'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업과 농촌을 연결, 양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1사1촌 운동의 과정과 성과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문화원 운동'을 단순한 차례 행사에 머물지 않고 실제 내용 있는 관계로 꾸려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지역문화강좌를 지방문화원으로 일원화 필요

지방문화원이 맞닥뜨린 문제 또한 만만찮다. 우선, 지방 분권이 가속화하면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각 지자체에 이관되는 추세이고, 그 결과 지방문화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는 곧 각 지방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상업적이고 획일화된 지방문화가 만연하는 현실로 연결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이다.

지방문화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유연성 부족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 설정의 부족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 주체의 통합 및 연결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문화원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문화원 자체적으로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지역문화강좌를 지방문화원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문화원과 중복되는 문화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일방적인 관 주도 행사의 행사 보다는 민간 주도의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더 큰 호응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강좌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문화원이 이를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사랑방으로

그러나 여기에는 지방문화원의 자체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백화점식 사업 운용을 지양하고 보다 정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턱대고 공공 문화강좌 사업의 전담을 주장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한 지역의 다른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절실하다.

지방문화원은 궁극적으로 퇴근한 가장이 슬리퍼를 끌고 편안한 차림으로 방문, 음악도 듣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역문화의 사랑방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지방문화원이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무엇보다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 각 원에 3, 4명에 불과한 직원들이 '퇴근 후 시간'까지 책임지기에 과다한 업무량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책임의식이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는 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문제는 시스템이다.

문화원 인프라 구축과 내부 역량 강화 필요

또한 '문화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시·군·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지방문화원에 무상임대토록 돼 있지만, 실제로 노후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오늘날 같은 첨단 시대에 노후한 건물에서 수강하려고 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독립된 문화원사를 지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처럼 지방문화원이 제몫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원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곧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지도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 또는 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면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지자체의 입김을 피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향토사와 지역문화재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만 지방문화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설과 세시풍속

구정도 민속의 날도 아닌 설날이 옳다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에 희자(羲子)가 만들었다는 음력(陰曆). 그 음력은 태양(太陽) 태음력(太陰曆)의 준말로 양력보다 훨씬 과학적이라는 주장이 꽤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우선 양력의 한 달은 길이가 28일에서 31일까지 '뒹대로' 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태양력! 즉 태양력의 준말인 양력은 달(月)이란 개념이 전혀 없다. 다만 태양의 운동을 나타낸 날짜 계산법으로 1년 365일을 편의대로 열들로 나눈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라 하여 서양의 '양(洋)을 따 '양력(洋曆)이라 하다가 슬그머니 '양력(陽曆)으로 둔갑된 것이다.





1년 365일을 편의대로 12로 나눈 양력은 12분법의 공평한 기준이 없다고나 할까!...아무리 보아도 '멋대로' '편의대로' 인 것 같다. 이를테면, 그 이유로 7, 8월이 잇달아 31일씩인 까닭을 훑어보니, 옛 로마 황제인 율리어스 시저와 그의 조카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각각 7, 8월에 태어난 것을 기리기 위해 7, 8월의 영어 문자인 율리어스(julies)는 7월(july)로 또 아우구스(August)는 8월(August)로 된 것이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월 초하루도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한 나머지 즉 자투리 날짜이다. 예수의 부활절을 고정시키려는 서양 기독교들의 노력 끝에 부수적으로 생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날짜이다.

이에 비해 예로부터 우리가 즐겨 사용해오던 태음력의 음력은 달과 태양의 운동을 잘 조화시켜, 달의 운동을 24절기로 나타내는 2중 구조로 되어 있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히 정확하고 과학적이다. 말하자면 태양과 달의 운동을 잘 조화시킨 것이다.

한편, 올해 2009년 1월 1일은 지구의 자전운동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를 맞추기 위해 1초를 더하는 윤초(閏秒)가 3년 만에 실시했다는 소식이다. 무슨 말이고 하니, 1월 1일 오전 8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를 더해 평소에는 없는 시간인 8시 59분 60초 가 나타내게 되었다. (윤초 조정은 1972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스물네 번째, ...지난번 조정은 2006년 1월 1일에 실시된 바 있다. 윤초 조정은 지구의 자전 운동 시간이 하루 24시간보다 미세하게 길기 때문...) 또한,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

치고 있는 '음력'은 옛 중국 은나라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음력 짜임새의 오기(五紀)·세(歲), 일(日), 월(月), 성진(星辰), 역수(曆數)는 4300여 전 회자가 만든 것으로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아시와 설날, 그리고 설날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되는 정월 초하루를 우리는 설이라 불렀다. 그것도 태양력 1월 1일이 아닌, 태양 태음력 정월 초하루 말이다.

그런데 1895년 태양태음력 11월 17일이 양력 1896년 1월 1일이라는 외세 열강의 압력으로 고종황제의 칙령이 반포되기에 이른다. 일제에 의한 창씨개명(創氏改名)보다 더 앞서 창일개명(創日改名)을 한 것이다. 그로부터 우리의 설날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양력설의 그늘에 가려 엉뚱하게 구정(舊正)이라는 국적불명의 이름으로 천대를 받게 된다. 그것도 일제 치하 35년, 조국이 광복되고도 반세기가 넘도록 푸대접을 받다가 우리의 설날을 되찾은 것은 1985년부터다. 이제 그 이름을 구정에서 민속의 날 조상의 날을 거쳐 설로 바로 잡았건만 아직도 구정 운운...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되는
정월 초하루를
우리는
설이라 불렀다.

일제가 우리 땅을 도륙질하며 남기고 간 일본 제국주의의 찌꺼기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을 구정이라 비하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일제 저들은 흔히 말하는 미개의 아시아에서 벗어나 선진 구라파와 같은 나라라는 뜻의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내세워 개화민족(?)이라는 우월감으로 한국 사람들의 고유명절인 설을 야만인 명절로 비하, 구정으로 지칭, 업신 여겼던 것이다. 설은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겐 분명 설일 뿐이다.

설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우리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산스크리트(sanskrit) 말, 살(sal)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본다 고 했다. 또 설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밤낮으로 돌고 돌아 마침내 해를 크게 한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서는 날이라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한 해가 돌아오면 돌을 맞이한다고 하고 그 날을 돌날이라 한다. 이렇게 설날의 설은 서다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서는 날 선날 설날이 옳을 법도 하다. 그러나 우리말에 곡식이나 과일이 덜 익은 것을 설익다 또 평소애 별로 안면이 없는 사람을 두고 낯이 설다, 밥이 덜된 것을 '밥이 설다' 라고 우리는 흔히 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설은 처음 맞이하는 날인만큼 '설은 날' '설익은 날' 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어찌 되었든 또 한 해(무자년)가 저물었다. 누구나가 이때쯤이면, 걸어온 한해를 돌아보고 또 살아갈 내일을 설계할 것이다.

태음력으로 동지가 들어있는 달 11월(동짓달), 동지를 일컬어 '아세(亞歲)' '아지' '애동지' 라고도 한다.

이 말은 작은 설이라는 뜻으로, 이 날 팔죽을 쑤어 먹으면서 '한살 더 먹었다' 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아세 아지 애동지의 아, 애는 우리 말의 작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시(세) 아지가 어느새 까치로 변해,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하고 곧잘 부르는 설날 동요가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노랫말이다. 까치와 설날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 노랫말이 아지아지 설날…이러야 맞다. 그러니까 작은 설날은 어저께이고 우리우리의 큰 설은 오늘이라는 뜻(물론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길조라는 상징적인 뜻으로 설날과 결부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말에 동생을 형보다 작다는 뜻으로 아시,

아버지의 동생을 아재(아저씨) 또 물고기 가운데 작은 물고기인 미꾸라지는 머꾸리+아지의 합성어임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작은 개울을 아치울, 어린이를 아(애)기 등에서 보듯이 아시 아지(치) 에 등은 모두가 작다는 뜻.

임금은 신하에게 달력을, 친인척 이웃 사이에는 덕담과 공동체의식 다져…; 또 설날 음식으로 떡국을…

옛날 중국에서는 아지(동지)로 설날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지가 되면 관상감(觀象監)에서 달력을 만들어 궁중에 바쳤다. 궁중에 바친 달력 가운데 노란색으로 단장된 것을 으뜸으로 쳤다고 한다. 임금은 거기에다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어보를 찍어 설날이 가까워 오면 조정중신과 관가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또 지방에서 아전들이 관원들에게 만들어 바친 달력은 설날 고향 친지나 또는 평소애 은혜를 입은 사람, 묘지기한테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설날을 전후해서 좋은 선물로 달력을 나눠주는 것으로 흡족했고, 또 그 풍습은 적어도 해가 바뀌어 새해 정월까지도 이어졌다.

지난해와 다가올 해를 이어주는 아지(동지) 그리고 선달 설날 새달(정월)까지 세월의 이음새로 달력을 선물하던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세시풍습. 또 설날! 이 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하여 수명과 풍령을 관장하는 세에게 복을 빌고,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가래떡을 길고 가늘게 만들어 식구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함께 먹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동기간에 친인척간에 또 이웃간에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고 화목을 다졌던 것이다. 진정한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흥환 동대문문화원 이사

한국의 제의례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의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제의례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祭儀禮

9.

기일제사 忌日祭祀



기제총설(忌祭總說)

(1) 기제 명칭 | 돌아가신 날의 제이라는 뜻으로 기일제사인데 약칭해 기제(忌祭)라 한다.

(2) 기제 대상 | 봉사 주인(奉祀主人)의 고조까지 4대를 지낸다.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뵈을 수 있는 조상까지를 지내는 것이다.

(3) 봉사 자손 | 원칙적으로 장자손(長子孫)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낸다.

(4) 배우자 합사(合祀) | 기제란 돌아가신 날에 지내므로 그날 돌아가신 조상만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 살아 계실 때도 내외분은 함께 모셨으므로 기제사도 배우자는 함께 지내는 것이 인정에 맞는다.

(5) 기제 일시 | 예서에 보면 돌아가신 날의 궐명(厥明·만동이 틀 때)에 시작해 질명(質明·밝아 올 때)에 끝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그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 새벽(丑時1刻·새벽1시15분)에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엔 생활여건의 변화로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에 지내는 기정이 늘고 있다. 만일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1시가 되기 전에 지내야 한다.(밤 11시가 넘으면 干支時刻으로 다음날 子時로 오해할 수 있어서이다.) 그리고 제사 날은 음력이 아니고 양력으로 지내야 합리적이다. 음력은 1년에 11.5일이 틀리고,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공용하여 그 해의 연호를 양력을 세웠다는 뜻으로 건양(建陽)이라 했다.

(6) 기제 장소 | 장자손의 집 정침(正寢·큰방)에서 지낸다. 정침이란 주인이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현대는 안방이나 대청 거실에서 지내면 된다.

(7) 체천기제(遞遷忌祭) | 장자손이 고조까지 지내므로 현손인 장자손이 세상을 뜨면 기타 살아 있는 현손까지의 자손 중 제일 어른에게로 옮겨서 지내는 기제이다. 모든 현손이 다 죽으면 친진(親盡)이라 해서 기제를 폐하고 세일사를 지낸다. 다만 나라에 공훈이 있어 계속해 기일제사를 지내도록 은전을 받은 조상은 친진 후에도 장자손이 기제를 지내는데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하여 계속해서 기제사를 지낸다.

(8) 부녀참례(婦女參禮) | 모든 제의에는 여자도 참여한다. 기제도 일반이다.

기제의 절차

(1) 재계(齋戒) | 기제일이 되면 전날부터 기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그 조상만을 기린다. 만부득이 해서 전통적인 재계가 안 되었으면 제사 지내기 전에 반드시 목욕부터 하는 것이 좋다.

(2) 쇠소정침(灑掃正寢) | 기제지날 장소를 깨끗하게 쓸고 닦는다.

(3) 제주수축(題主修祝) | 주인은 신주가 없으면 단정한 자세로 지방을 쓰고 축문을 쓴다.

(4) 설위진기(設位陳器) | 주인은 제의 기구를 배설한다. 병풍, 교의, 제상, 향안, 주가, 소탁, 촛대, 향로, 향함, 모사기, 축판, 대상, 쟁반, 행주, 세숫대야(수건)를 진설도를 참고해 제자리에 벌린다.

(5) 척기구찬(滌器俱饌) | 주부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제수를 조리해 대상 위에 대기시키며 식어서는 안 될 제수는 식지 않게 한다.

(6) 번복서립(變服序立) | 제사지날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가 예복으로 바꾸어 입고 손을 씻은 다음 정한 자리에 공손한 자세로 선다. (참례자 위치도 참고)



(7) 점촉(点燭) | 어두우면 동서집사(東西執事) 또는 주인·주부가 초에 불을 켜다. 예전에는 조명용으로 초를 켜으나 현대는 초를 의식으로 간주해 어둡지 않아도 불을 켜다.

(8) 설 소과주찬(設蔬果酒饌) | 주인과 주부는 집사(陳設)의 협조를 받아 주가위에 주전자, 퇴주기, 현주와 술병을, 소탁 위에 강신뇌주 잔반을 차리고, 제1열의 시접, 잔반, 초접과 제5열의 과일 전부와 제4열의 포, 해, 숙채, 김치, 간장 전부를 진설 순서에 따라 차린다. (식어도 상관없는 제수)

(9) 봉주취위(奉主就位) | 가묘에 신주가 계시면 모든 참례자가 가묘 앞에 서고 주인이 그날 제의대상 신주를 받들고, 정침으로 돌아와 소탁 위에 모셨다가 주인이 교의 위의 정한 자리에 다시 모신다. 이 때 신주를 정침으로 모시는 출주 축문(出主祝文)을 읽기도 한다. 지방(紙榜)이면 이때 위패함(位牌函)에 모시고 사진을 모실 것이면 정한 자리에 모신다. 신주라면 주인이 독개(檀蓋·위패함 덮개)를 열고, 주인이 남자 조상의 신주 덮개(緇)를 벗기고 주부가 여자 조상의 신주 덮개를 벗겨 독좌(檀座) 좌우에 세운다.

(10) 강신분향(降神焚香) | 신주라면 먼저 참신을 하고 다음에 강신을 한다(先參後降) 했으나, 참신을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강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신을 먼저 하고도 강신을 하는 고례의 제도로 보아 먼저 하는 참신은 신주를 빚는 것이지 조상을 빚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당연히 강신을 먼저 해야 한다. 분향은 향긋한 향을 태워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신령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상징적인 청신(請神) 행위이다.

- 주인이 향안 앞에 북향해 읊을 하고 꿇어 앉는다.
-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열어 향로 남쪽에 놓고 오른손으로 향합뚜껑을 열어 향합 남쪽에 놓는다.
-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넣어 태우기를 3번 하고,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덮고 오른손으로 향합 뚜껑을 덮는다. (향을 집어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 주인은 일어나서 한발 뒤로 물러나 읊하고 두 번 절한다.

(11) 강신뇌주(降神酌酒) | 뇌주는 향기로운 술을 땅바닥에 부어 적셔서(酌酒灌地) 지하에 계실지도 모를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청신(請神) 절차이다.

- 동집사(東執事)는 주가 앞으로 가서 술병의 뚜껑을 열고 행주로 술병 주둥이를 깨끗이 닦은 다음 주전자에 술을 부어(술을 따르기 편한 술병이면 주전자가 필요 없다.) 주전자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主人的 오른쪽 앞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 서집사(西執事)는 소탁 앞으로 가서 강신 잔반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主人의 왼쪽 앞에서 동쪽을 향해 선다.
- 주인은 읊하고主人과 두 집사가 함께 꿇어앉는다.
- 서집사는 강신잔반을主人에게 주고主人은 두 손으로 강신 잔반을 받아서 받쳐 든다.
- 동집사는主人이 든 강신잔반에 술을 가득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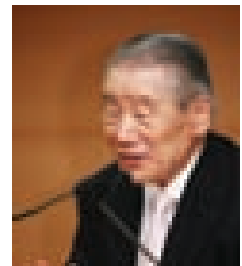
- 주인은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집어 묘사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3번에 나누어 술을 모두 지운다(三除去地).
- 주인은 잔을 잔대 위에 올려놓고, 잔반을 서집사에게 주고, 서집사는 두 손으로 받는다.
- 주인과 두 집사가 함께 일어난다.
- 동서집사는 강신 잔반과 주전자를 원 자리에 놓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 주인은 한 발 물러나서 읊하고 두 번 절하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12) 참신(參神) | 주인·주부 이하 모든 참례자가 조상에게 빚는 현신(見神)절차이다.

- 주인 이하남자는 두 번 절하고 주부 이하 여자는 네 번 절한다.
- ● 생각하건대_ 강신이 먼저냐, 참신이 먼저냐는 다름이 있다. 여기에서는 강신은 청신(請神) 행위이고 참신은 현신(見神)행위라는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신을 빚는 참신을 먼저 했다면 신이 거기에 계시서 보였는데 신을 청하는 강신을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강신을 안 한다면 모를까 강신을 할 것이면 강신을 먼저 하고 참신을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13) 진찬(進饌) | 식어서는 안 되는 제수를 제상에 올려서 차리는 일이다. 주인이 올리는 제수를 남자 집사가, 주부가 올리는 제수는 여자 집사가 대상 위에서 쟁반에 받쳐主人과 주부에게로 나른다.

- 주인은 향안 앞 동쪽 앞에 나가서고 주부는主人의 왼쪽에 선다.
- 주인은 읊하고 주부는 몸을 굽혀 예를 한다. (屈身禮)
- 主人과 주부가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主人이 육전 초장(또는 육회도)을 올리고 주부가 고위 면, 비위 면을 올린다.
- 主人과 주부가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서主人이 어전(또는 어회와 겨자도)을 올리고 주부가 고위 떡, 설탕과 비위 떡, 설탕을 올린다.
- 집사가 육탕, 어탕, 계(소)탕 순으로 탕을 모두 올린다.
- 主人과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옮긴다.
- 主人이 고위 갯을 올리고 주부가 고위 반을 올린다.
- 主人과 주부가 제상의 동쪽으로 옮긴다.
- 主人이 비위 갯을 올리고 주부가 비위 반을 올린다.
- 主人·주부와 남녀 집사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문화유산 전승교육 워크숍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지회장 한공익)는 지난 2008년 11월 26일 제주시 파라다이스회관에서 문화유산 전승교육 워크숍을 가졌다.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고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행사로서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제주도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기르는 한편 무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시키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발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북문화원
‘2008 삼각산 역사문화 세미나’

서울 강북문화원(원장 정수인)은 2008년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강북구 소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구 후원으로 ‘삼각산과 단군제례의 역사성 조명’이라는 주제의 2008 삼각산 역사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각산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국가의 제사를 지냈던 영산으로서 이런 역사적 흐름이 이어져 오늘에도 삼각산 제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국대 명예교수인 김희오 박사(정치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삼각산과 단군제례의 역사적 조명’ (김선풍, 중앙대 명예교수)과, ‘삼신신앙과 기자신앙’ (오출세, 동국대 교수), ‘단군사상의 현재적 의미와 삼신사상의 역사성’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으로 나누어 발표되었고, 김병욱(동국대) 교수와 김석근(연세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삼각산 제의의 역사적 흐름은 물론, 삼각산과 관련된 단군과 삼신신앙, 그리고 기자신앙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삼각산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삼각산 제의가 오늘날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합천문화원

신재 주세붕 선생, 합천 3·1운동사
학술토론회

합천문화원(원장 차관암)은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 합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의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문화원 회원과 향토사학자, 3·1운동 독립유공자 유가족, 상주 주씨 문중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 주세붕 선생, 합천 3·1운동사 학술토론회' 를 가졌다.

합천향토사학회 권병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서원의 역사와 신재 주세붕 선생' 이라는 주제로 소수서원의 박석홍 학예사는 '소수서원이라는 한국 최초의 사립대학을 세워 오백년 세월에 가깝도록 문풍(文風)을 쇄신시킨 일은 주세붕 선생의 업적 중에 으뜸이었다' 고 전제하면서 당시 당쟁의 혼미 속에서도 민족적 자주성 확립과 이단 배척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평생을 중용의 도로 관직에 있으면서 참된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딱하게 여기시고 공삼폐단을 덜어준 일은 당시 영주를 포함한 풍기군민들에게는 삶의 은인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정은 연구원은 '합천의 3·1운동사' 를 주제로 '합천군의 지역사회는 3·1독립운동 기간 중에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위운동을 조직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공세적인 시위운동을 펼쳤다고 전하면서 합천지역을 비롯한 지방사회가 조선총독부라는 중앙의 수직적, 일원적, 일방적 지배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성격의 3·1 의거는 향촌공동체의 결속력이 만들어낸 시위라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서 합천군의회 박우근 부의장과 합천향토사학자인 허종만 선생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광주 서구문화원

제3회 행복서구 장수한마당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김 중)은 2008년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서구문화원 실버문화학교 60여 명의 수강생들이 펼치는 제3회 행복서구 장수한마당이 열렸다.

빛나는 조명이래 '희망의 속삭임' 과 '꽃사시오' 를 부르기 위해 문화원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어르신들은 지난여름부터 비지땀을 쏟았다.

서구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실버문화예술단' 을 조직, 소외시설 위문공연 등 사회봉사활동과 관내 유치원 및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민요 따라잡기 교육을 통해 남도민요 보급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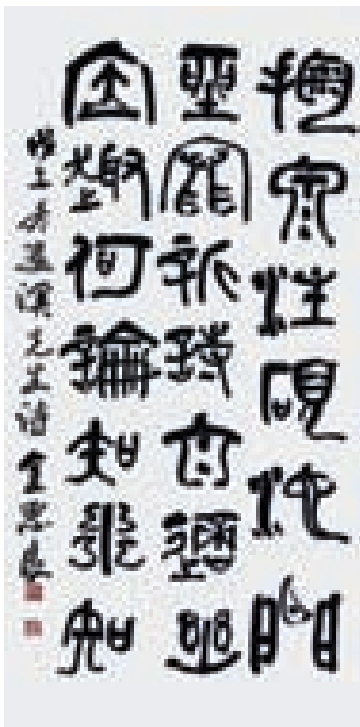


이날 장수한마당에서는 지난 가을 전주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실버문화축제'에서 전국 실버스타로 뽑힌 정 용 할아버지가 임방울의 '추억' 과 단가 '어화세상' 을,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구 실버문화학교 민요단의 '뱃노래' '태평가' '꽃타령' 등의 우리민요와 찬조 시낭송 공연 등 볼거리와 '함께 배워보는 남도민요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관람객들에게는 남도민요 가사집도 한 권씩 배부했다.

충주문화원

제32회 김생서예대전

충주문화원(원장 전찬덕)은 지난 2008년 12월 6일부터 7일간 관아골 갤러리와 충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32회 김생서예대전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열었다.



신라시대의 명필 김생 선생은 충주 출신으로서 중국의 서성(書聖) 왕희지를 능가하는 서예대가로 예·행·초서의 온갖 서체에 능한 동방서도의 1인자로서 선생의 예혼을 추모하고 계승 발전시켜 선생의 후예를 양성, 서예인의 저변확대를 통한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한문, 한글, 문인화, 전각, 현대서예, 서각 부문의 작품을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총 580여 점을 접수하고 이를 서예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심사한 끝에 현장 휘호를 거쳐 영예의 대상에는 한문에 김은양(전북 전주시)씨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 김원한(한글, 강원 횡성군)씨와 이병숙(문인화, 충북 진천군)씨, 안병헌(한문 충북 충주시)씨가 각각 차지했다.

대덕문화원

2008 대덕문화가족 작품발표회

대전시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헌)은 12월 5일 대덕문화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에서 대덕구 후원으로 한 해 동안 같고 닮은 수강생 작품에 대한 2008 대덕문화가족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5세 미만 어린이 3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벨리댄스에 의해 막을 연 이날 무대 공연에서 삼도설장구, 경기민요, 댄스스포츠, 건진가요, 한국무용, 장구장단, 영남농악 등 1부 행사에 이어 2층 전시실에서는 서예, 문인화, 민화 등의 작품에 대한 전시도 함께 열렸다.

연수문화원

제7회 연수 깊이알기 경진대회

인천 연수문화원(원장 김원옥)은 지난 2008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원인재에서 연수구와 인천시교육위원회, 인천시동부교육청, 인천역사문화연구회, 황우여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연수구에 거주하는 초·중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 경시와 향토백일장, 향토사진 부문의 연수 깊이



알기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연수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게 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함양하고 고장에 대한 역사와 향토 관련 지식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며, 나아가 향토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역을 넘어 인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을 만드는데 근간이 되도록 하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각 부문별 대상 입상에는 백일장 초등학



교 시 부문에 김지효(연화초 6년) 학생과 산문부문 성동현(문남초 5년) 학생이, 중등학교 시 부문에는 조연주(연성중 2년) 학생과 산문에 문윤경(청학중 1년) 학생이 각각 차지하였다. 그리고 경시에는 이정재(문남초 5년) 학생과 이정완(옥련중 3년) 학생이, 사진 부문은 이동원(연화초 6년) 학생과 배상은(인천여중 1년) 학생이 각각 대상을 탔다.

창원문화원

창원 역사탐방

창원문화원(원장 박동백)은 창원부 탄생 600주년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과 30일, 12월 13일과 14일 두 차

레에 걸쳐 창원을 고향으로 삼고 살아갈 시민과 학생, 근로자들에게 창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하여 공업단지를 가진 신생도시가 아닌 6백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임을 알리며 향토애와 함께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건강한 사고와 가치관을 심게 한다는 취지아래 창원 관내 문화 역사유적지를 대상으로 창원 역사탐방 기회를 가졌다.

용지공원(龍池公園) 새영남포정사와 비석길, 불곡사 일주문, 비로자나석불, 성산패총 야철지, 유물전시관, 복면 사리실 마늘과 최윤덕 장상(將相) 유적지, 동읍 고인돌 등을 탐방함으로써 역사의식을 갖는 시간과 함께 긍지를 느끼면서 철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주남저수지에도 들러 생태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동작문화원

개원 10주년기념 한마음축제

서울 동작문화원(원장 강희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문화원 4층 대강당에서 김우중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의회 우길웅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한마음축제를 가졌다.

1998년 12월에 동작문화원이 창립된 후 1년만에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최우수상과 2004년 전국 문화원운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동작구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충족과 함께 동작구청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날 제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에 열성적으로 이바지해 온 김우중 동작구청장에게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이 공로패를 증정하였으며, 연만희 초대원장과 이운선 부원장에게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김영섭 서울시지회장이 각각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강희일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의 새로운 문화수요에 부응하며 창의적인 경영마인드로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2부에서는 문화학교 수강생들로 주축이 된 동아리 반에 의한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포천문화원 문화인의 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2월 12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서장원 포천시장과 포천시의회 이중효 의장 및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문화가족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문화인이 밤을 열었다.

문화원 1년을 결산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문화원 자문위원 추대패 증정을 시작으로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작품전시 및 공연, 만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문화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좋은 책 읽기운동 독후감 및 문화유적답사 소감문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2008 수료생 1천 80여 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 23개 과정에 대한 공로상과 꿈나무 상을 시상,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축시 낭송과 함께 1년간에 걸쳐 배운 고전강독, 사물놀이, 우리춤 체조, 경기민요, 대금,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전시장에서는 꽃꽂이, 사군자, 한국화, 전통 및 현대서각, 고색 한지공예, 소묘 수채화, 규방공예, 서예, 전각, 연필파스텔화 등 문화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끌었다.



함안문화원 2008 문화가족 축제

함안문화원(원장 조훈래)은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함안군청 회의실에서 2008 문화가족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문화학교 기타반의 기타 연주에 이어 제1부 의례행사와 제2부에서는 도산학회 이만열 회장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역사의식', 한국외대 사학과 반병률 교수의 '대안 이태준의 항일민족운동과 몽골'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이 있는 다음 진해문화원 실버뮤지컬공연단의 뮤지컬 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경문화원

2008 문경새재아리랑제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문경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경상북도와 문경시 후원으로 2008 문경새재아리랑제를 열었다.

신현국 문경시장과 정계월 교육장, 임병하 경찰서장 등 많은 내빈과 문화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리랑제에서 채대진 원장은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의 문화교류 접경지인 문경은 그 역사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생활민속에 그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고 전제하면서 지금까지 채택된 문경새재아리랑 가사에는 수없이 많은 인간 삶의 모습이 내재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과 이별, 싸움과 한 등이 곡조마다 스며있으며 문경새재아리랑은 '문경새재'를 고난의 상징인 '고개'로 합성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하면



서 '이는 근대 아리랑사의 주역이 문경새재아리랑임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문경새재아리랑의 독보적인 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송옥자 회장, 영남아리랑연구회 배경숙 회장과 김동숙 상주지회장,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인 김순녀 씨와 김순덕 씨, 서울 긴아리랑 김미령 명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상임이사와 경북대 김기현 교수로부터 '새재소리, 문경아리랑되어 온 누리의 소리' 제하의 특강을 통해 문경아리랑이 수많은 경상도 지역 아리랑 중 조종(祖宗)이 되었다고 규명하였으며, 김연갑 상임이사는 '아리랑과 고개의 합성명사의 출현계기가 아리랑과 문경새재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모든 아리랑의 중심에 문경아리랑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오늘 이 아리랑제를 개발전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칠곡문화원

전통세시풍속 동지(冬至)체험

칠곡문화원(원장 장영복)은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북과 학대학박물관 전통문화체험학교에서 전통세시풍속 동지(冬至)체험 행사를 가졌다.





세시풍속 '동지'는 대설과 소한 사이의 24절기 중 하나로 동지를 시작으로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날이다.

동지체험행사를 통하여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의 마음을 체험장에서 함께 나눈다는 취지아래 체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입소식을 가진 다음 세시풍속 '동지의 먹거리이야기' '옹심이 만들어 팔죽끓이기'와 팔죽과 동치미 시식 등 먹거리 체험에 이어 공예체험 시간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등으로 5시간의 소중한 체험일정을 마쳤다.

강화문화원

개천대제 재정비를 위한 학술회의

강화문화원(원장 우광덕)은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강화청 소년수련관에서 강화군과 강화군의회 후원으로 개천대제 재정비를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대 윤이흠 명예교수로부터 '단군이해에 대한 오늘의 문제'와 '단군정신을 되새겨 우리 민족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자'라는 제목의 참성단과 단군사상의 의의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한국의 제천의례' (서영대 교수: 인하대), '국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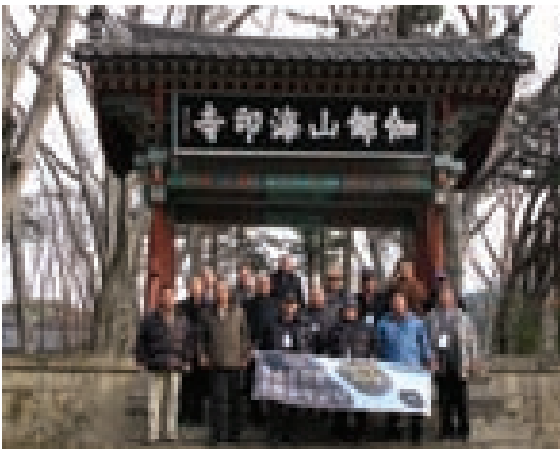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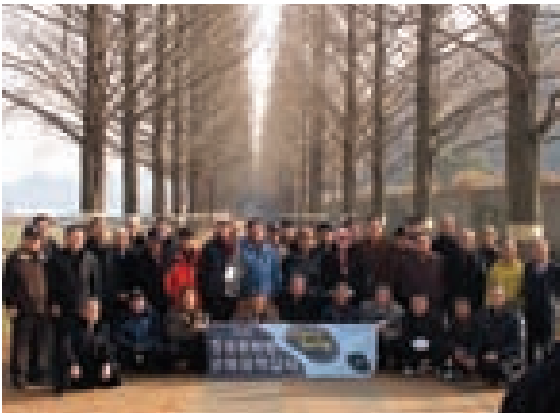
사에서의 단군 및 참성단 제사' (김성환: 실학박물관), '신종교의 단군제사' (이욱: 한국학중앙연구원), '강화도 참성단 개천대제의 재활성화와 방안' (정장식: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강화역사문화연구소 김형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는 서강대 김영덕 명예교수와 전 송조희 김용은 사무국장, 전주대 송화섭 교수, 강화문화원 유중현 향토사연구위원, 동국대 윤명철 교수, 강화군 이용식 문화관광과장, 강화군노인회 전동걸 회장, 송조희 황우연 부회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청송문화원

2008 문화유적답사

청송문화원(원장 김희목)은 12월 8일부터 이틀간 청송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법보사찰 합천 해인사와 하동군 청학동 선비서당을 거쳐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담양 죽녹원과 대나무 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가시문학 관련자료와 송순의 면암집,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유묵 등이 전시되어 있는 한국가시문학관과 남원 광한루원 등을 둘러보는 2008 문화유적 답사를 가졌다.



광주 북구문화원

제4회 가족과 함께하는 시낭송 한마당

광주 북구문화원(원장 이종철)은 12월 12일 저녁시간에 광주 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후원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낭송 한마당' 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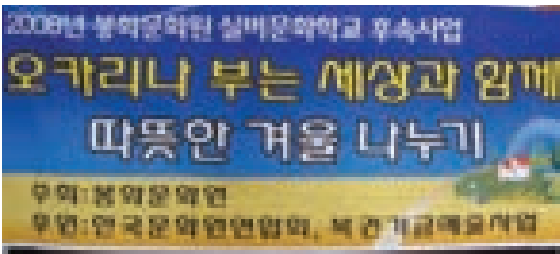
언어가 훼손되어 가는 요즘, 가족이 함께 시를 쓰고 낭송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창의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고 어른들에게는 풍부한 감성과 상실되어 가는 정체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갖게 된 이번 시 낭송 한마당에서 박찬주 가족이 영예의 으뜸상을 차지했으며, 서기욱, 주명자, 권지우 가족이 각각 버금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한별 가족 외 네가족이 화합상을, 유기성 가족 외 13가족이 각각 단합상을 수상하는 등 시 낭송 한마당으로 세모의 아쉬움 속에서 지역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였다.

봉화문화원

오카리나 부는 세상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누기

봉화문화원(원장 권정환)은 12월 11일부터 봉화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2월 17일 내성리경로당, 12월 18일 법전요양

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따뜻한 음식과 오카리나, 풍물, 민요, 가야금, 한국무용 등을 공연하면서 어르신들과 추운 겨울을 함께 나누는 '오카리나 부는 세상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경주문화원

12월 향토문화유적답사

경주문화원(원장 오해보)은 12월 13일 울산시와 경남 양산일을 대상으로 12월 향토문화유적답사를 가졌다.

첫 행선지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선사시대의 암각화로서 가로 약8m, 높이 3.7m의 병풍같은 바위 면에 고래, 개, 늑대, 호랑이, 사슴, 멧돼지, 곰, 토끼, 여우, 거북, 물고기, 사람 등의 형상과 고래잡이 모습, 배와 어부의 모습, 사냥하는 광경 등이 그려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다.



그리고 천년고찰의 명산으로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많은 천성산으로 원효스님이 창건하여 천인이 함께 득도하였다고 해서 산 이름도 천성산(千聖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는 미타암을 답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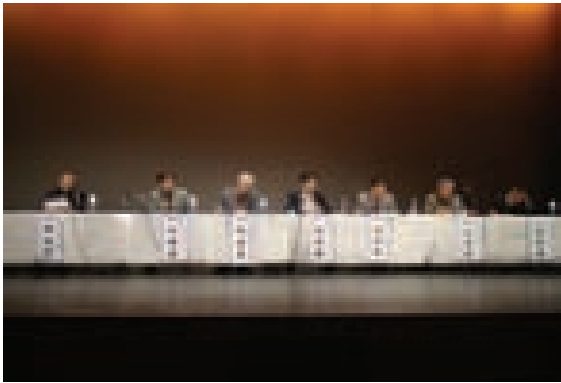
당진문화원

남이홍 장군 학술토론회

당진문화원(원장 정정희)은 12월 16일 당진문의예전당에서 남이홍 장군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당진 출신인 남이홍 장군은 조선 선조 35년 27세의 나이로 알성무과에 합격, 현·부·목사를 거쳐 이판의 난을 평정하고 정묘호란 때 순국한 인물이다.

이한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성무 박사는 '충장공 남이홍의 생애와 군공'을 주제로 당

시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통찰을 바탕으로 당시의 시국이 남이홍 장군으로 하여금 장렬히 싸우다 자폭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당진문화원 박상건 이사의 '남이홍 장군의 생애와 충장정신', 공주대 이혜준 교수의 '남이홍 장군가 자료의 문화사적 가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상훈 연구위원의 '남이홍 장군 유적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문화원연합회 남선우 경기도지회장과 당진문화원 신양웅 이사, 방송평론가인 호천웅 씨의 토론을 통해 남이홍 장군의 역사적 중요성을 되새기고 역사·문화자원으로 발전시켜 당진의 문화유산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청소년들에게 충장공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동해문화원

2008동해지역축제활성화워크숍

동해문화원(원장 김형순)은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문화원 대회의실에서 동해시 후원으로 2008동해지역축제활성화워크숍을 가졌다.

지역문화활동가를 비롯해서 축제위원, 문화예술단체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이벤트기

획, 연출전문가인 '이벤트 넷' 대표인 엄상용 실장과 홍보전략의 고성일 국장과 KBS플러스 조원규 팀장, 광고기획전문가인 오주환 PD가 발제를 담당했으며, 동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대홍 국장과 삼척시립박물관 김태수 학예연구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동해문화원 조연섭 사무국장이 총괄진행을 맡은 가운데 '동해시축제의 방향성 제안'이라는 발제 제목으로 목표의 재설정, 예산의 재편성, Target의 재설정, 축제의 테마집중, 관광코스 개발, 관광캐릭터 및 캐릭터상품 개발 등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조직과 인력시스템의 재정비, 다큐멘터리 제작 등 영상매체마케팅문제, 축제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나간다면 지역축제의 활성화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 도입과 차별화되는 축제의 기획 및 연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대구 달서문화원

2008 어린이 동요대회 연말 결선

대구 달서문화원(원장 박재전)은 12월 16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달서구와 푸른방송, 푸른신문 후원으로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2008년 3월부터 11월 어린이 동요대회에서 금, 은, 동상을 입상한 수상자를 대상으로 연말 결선대회를 개최한 결과 21개 팀이 참가한 저학년부에서는 원훈초 3년 박시은 어린이

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같은 학교 3학년 신승아 어린이가 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4개 팀이 참가한 고학년부에는 왜관초 4년 이혜인 어린이와 도원초 4년 신지현 어린이가 각각 대상과 금상을 차지했다.



목포문화원

제13회 전라도사투리 구연(口演)대회

목포문화원(원장 김석철)은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목포문화관 문화체험관에서 제13회 전라도사투리구연대회를 가졌다.

지역민 고유의 기질과 얼이 담겨있고, 고장특유의 억양과 말씨가 끈끈한 정감까지 느끼게 하는 전라도 사투리의 원형 발굴 보존 및 이의 체계적인 정리로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 창달

을 기하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열린 이번 대회에서 목포, 해남 등지에서 참가 신청한 팀 가운데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11개 팀이 사투리 실력을 겨룬 결과 종합대상에는 '뿔뿔 시 책을 읽어?' 라는 제목으로 출전한 해남동초등학교 장진욱(3년), 장진명(1년) 형제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인 목포시 장상에는 '건강 7훈'의 김다운 학생(목포 향도초 6년)이, 최우수상 목포시의회 의장상에는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의 이상민 학생(목포 부영초교 4년), '불이요 불!!'의 서정빈 학생(목포 향도초교 6년)이, 목포교육장상에는 '전라도 사투리 퀴즈대회'의 이준현, 김예나 학생(해남동초교 3년)과 '갈매기 섬의 비밀'의 김준영, 조은진 학생(남악중 1년)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그밖에 우수상인 목포문화원장상에 목포향도초교 6년 한유선 외 4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지도교 사상(목포교육장상)에는 목포향도초교 박태순 교사가, 지도



상(목포문화원장상)에 해남동초교 박성안 교사, 목포부영초교 이양희 교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보여준 숨겨진 문화원 관계자와 심사위원들로부터 예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주문화원

순흥단종복위의거학술포럼

영주문화원(원장 박찬극)은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순흥단종복위의거학술포럼을 가졌다.

‘1457년(丁丑之變)의 진실은...’ 이라는 제하의 포럼 개최사에서 박찬극 원장은 550년간 묻혀진 충의정신의 진실을 밝히는 전제에서 그동안 역모의 땅으로 226년간 숨죽이고 살아왔던 순흥단종복위의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올바르게 정리하고자 이 포럼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사 사육신’ 저자인 류영박 선생의 ‘순흥단종복위의거 개요’에 이어 성신여대 오종록 교수의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운동’, 건국대 박찬수 명예교수의 ‘금성대군과 순흥단종복위의거의 시말’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호서대 강병수 겸임교수와 한국고문헌연구소 서수용 소장으로부터 각각 토론이 있었다.



구리문화원

구리문화학교 작품발표회

구리문화원(원장 김문경)은 12월 12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 박영순 시장과 구리시의회 최교병 의장을 비롯하여 3백여 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시작하면서 김문경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륜을 거듭하면서 문화강좌의 내실을 다져왔기 때문에 구리시민의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시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화원 합창단인 예다미의 축하공연과 함께 풍물반의 ‘구리환타지’란 주제로 퓨전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판소리, 경기민요, 진도북춤, 통기타, 색소폰 등의 발표와 문화원 강사인 박상미 씨의 대금, 박준호 씨의 색소폰, 박장복 씨의 통기타, 조수성 씨의 드럼 합주로 더욱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한편 서예와 문인화, 사진, 전통매듭반의 50여 점의 작품이 12월 19일까지 구리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마포문화원

제67회 삼개 시낭송회/ 2008 마포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

마포문화원(원장 이선재)은 12월 18일 마포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제67회 삼개 시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낭송회는 황금찬 원로시인의 문학 강연에 이어 전 마포구청장인 이경배 시인과 마포구의회 정해원 부의장의 특별 시낭송 등 관내 기관 단체장 및 지역 주민 2백여 명이 모여 유명 시인들의 시와 테너 정중순의 가곡 등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추계의 마당이 펼쳐졌으며 12월 29일에는 마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마포구 후원으로 2008 마포문화학교 수료식 및 수강생 발표회를 가졌다.



제1부 문화학교 수료식에 이어 제2부에서는 동화구연, 성악, 한국무용, 경기민요, 하모니카, 바이올린, 오카리나, 영어뮤지컬, 발레 등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 자랑이 있었다.

시흥문화원

문화학교 및 월미두레풍물놀이발표회

시흥문화원(원장 정상중)은 12월 12일 오후 3시부터 문화원 3층 강당에서 문화교실 및 월미두레풍물놀이 발표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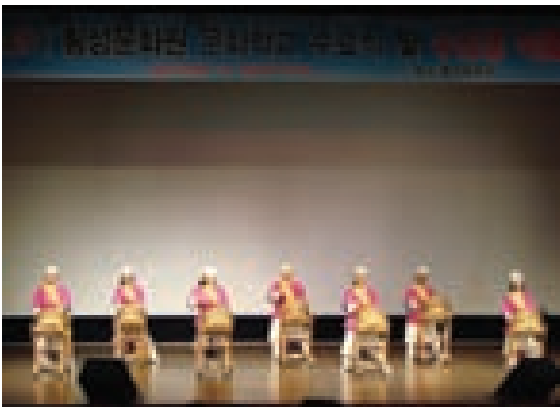
월미풍물 전승에 힘을 쏟고 있는 계수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논곡·장곡·소래중학교 학생 및 일반부의 풍물놀이 발표와 경기민요, 문화유산해설사, 시조창 발표에 이어 서예작품 전시회를 위시해서 문화유산해설사 고급과정 수료식도 함께 열렸다.

횡성문화원

2008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

횡성문화원(원장 김광수)은 12월 22일부터 3일간 문화원 전 시설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소양과 삶의 질을 높여 문화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아래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학교 서예교실, 비즈·압화교실, 사진교실, 주·야간 사물놀이교실, 판소리교실, 민요교실, 가야금교실, 장수춤교실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연마한 실

력을 작품으로 담아 전시하고 발표하는 결실의 자리를 마련했다.



동대문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은 12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구청 다목적홀에서 홍사립 구청장과 동대문구의회 김재학 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대문문화원이 지난 1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홍보영상물 상영과 공로자 표창, 기념식과 축하공연에 이어 리셉션이 있었다.



유성문화원 달실이네 떡마실

대전 유성문화원(원장 한근수)은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원 3층 테마카페에서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달려라 실내포장마차'의 떡 콘서트 '달실이네 떡마실'을 열고 한국의 전통문화인 떡을 통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야금병창 떡 범벅타령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떡 케이크 만들기 시연과 함께 떡으로 만드는 냇두리, 떡보 만세 연극놀이, 달실이의 떡 나눔 마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근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전통 떡에 담아 대전 시민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성환문화원

봉선 흥경사지학술발표회

성환문화원(원장 송용삼)은 12월 29일 천안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에서 성환지역 대표적 문화유산인 국보 제7호 봉선흥경사적갈비(奉先弘慶寺蹟碣碑)와 옛 봉선흥경사지에 대한 문화사적 가치를 살펴보면서 그 보존·전승에 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성환문화원 강형철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대전대 박물관장이며 역사문화학과 김갑동 교수(봉선흥

경사 창건의 배경과 그 동향)와 연세대 역사문화과 이인재 교수(성환의 문화상징, 봉선흥경사)로부터 각각 주제발표가 있는 후 토론이 이어졌다.



삼척문화원

2008 송년의 밤

삼척문화원(원장 장세훈)은 12월 26일 오후 5시부터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시민과 문화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출신 성악가인 테너 박원기를 초청, 가곡 및 가요를 감상하는 한편 가요합창, 색소폰, 국악, 풍물 등 문화원 국악·음악·풍물반이 꾸미는 '송년 작은 음악회'와 실직(悉直)문화 제19집을 비롯해서 민속지 제7집 근덕면편, 향토사대중화사업 자료집 등의 출판기념회에 이어 축배와 만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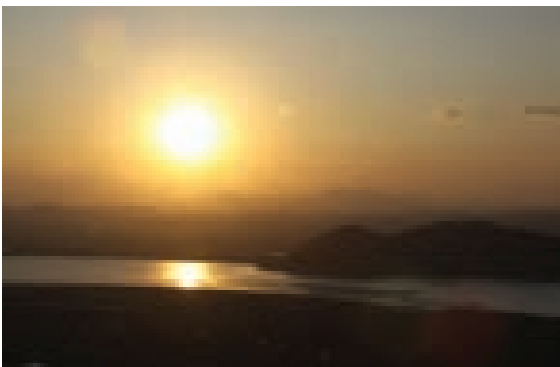
결한 친교의 시간에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서로 달래며 새로운 한 해를 맞는 포부를 다지는 '2008 송년의 밤'을 마무리했다.

파주문화원

2008파주 해넘이축제

파주문화원(원장 민태승)은 12월 31일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심학산에서 파주시 주최로 2008 파주 해넘이축제를 주관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오후 4시 심학초등학교 교정에서 풍물놀이 한마당으로 여는 마당이 펼쳐지면서 참가자 전원 이 파주의 명산인 심학산으로 이동, 멀리 김포평야를 넘어 서해바다로 넘어가는 한 해 마지막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일렉쿠키'의 해넘이 공연을 시작으로 송년메시지 전달과 희망풍선 날리기, 전통 등 및 청사초롱 점등, 파주시합창단 공연에 이어 조덕배의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를 비롯해서 나무자전거가 부르는 '너에게 난 나에게 난', 그리고 두드락의 모듬북 공연으로 해넘이 콘서트가 절정에 이르면서 불꽃놀이를 끝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나온 한 해 서로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만남의 마당이 이곳 노을이 아름다운 교하 심학산 기슭에서 펼쳐졌다.

*심학산(鶴嶺)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194m의 산이다. 조선 숙종 대에 궁궐에서 기르던 학이 날아가 사방으로 이를 수소문하여 찾던 중 이 산에서 학을 발견한 뒤로 심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전에는 산 주위로 한강물이 흘러 산이 강물을 막고 있다 하여 수막산(水澳山)이라고도 불리었으며 밀물과 홍수가 만나면 산이 깊은 물에 잠겨 심악(深嶽)이라고도 불리었다.

대전 동구문화원

2008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체험대회

대전 동구문화원(원장 신호철)은 12월 30일 오후 1시부터 문화원 2층 강당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후원으로 대전 동구 소재 초등학교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08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체험 대회를 열었다.

동구문화원은 독서체험 대회를 통하여 가족 간의 소통과 상

호작용의 기회제공은 물론 독서 의식을 고취하여 올바른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거행된 이날 대회에서 동대전초등학교 2년 김하은 아동 가족이 영예의 으뜸상을 수상했으며, 이동립 가족(동대전초 1년)과 한규림 가족(동대전초 3년), 유다훤 가족(대전 용운초 5년)이 각각 버금상을 수상했다.



김해문화원

2008 문화학교수료식 · 합동발표회 및 송년의 밤

김해문화원(원장 한고희)은 12월 29일 오후 6시부터 문화원 공연장에서 2008년도 문화학교 수업을 종료하면서 수료식과 함께 합동발표회 및 송년의 밤을 갖는 한편 전시실에서는 사

군자반과 서예반의 작품전시(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열었다.

이날 국악과 한국무용 공연이 펼쳐진 다음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겸한 송년의 밤이 이어졌다.



울산 복구문화원

2009 강동해변해맞이 축제

울산 복구문화원(원장 이병우)은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2일간 강동 정자항 남방과제 야외공연장에서 울산시 복구 후원으로 2009 강동해변해맞이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울산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동해변의 아름다



운 경관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복구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해를 여는 첫 해를 바라보며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며, 철저한 행정 지원 계획수립으로 교통 및 주차장 안내대책 등 관광객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컨셉으로 불꽃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맞이 축제를 열었다.

성남문화원

‘2009성남시 해돋이 천제봉행’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기축신년을 맞는 새해 첫날 새아침에 ‘2009 성남시 해돋이 천제봉행(天祭奉行)’을 오전 7시부터 성남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원 회원 및 많

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하였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남북통일과 국제민안을 기원하는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성남시 해돋이’ 행사는 식전공연인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 퍼포먼스 ‘동방의 아침’으로 새해의 힘찬 기운을 돋웠으며, 밝게 떠오르는 해와 함께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제의례’가 시작되었다.

이날 제관으로 음복례를 맡은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과 이현관을 맡은 김대회 성남시의회 의장, 종헌관을 맡은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의례를 행하며, 1백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성남시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내빈들의 ‘새해 메시지 낭독’과 신년 축시 ‘새날, 하늘에’(작사: 한춘섭 / 낭송: 이주희) 낭송에 이어 천제봉행 참여자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새해 소망을 비는 ‘대북 타고’로 행사장의 분위기가 뜨거워졌으며, ‘성남오리뜰 두레농악’을 끝으로 흥겨운 잔치가 마무리되었다.

포항문화원

포항향토문화사의 이해를 위한 동계 교사 직무연수

포항문화원(원장 권창호)은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연 30시간 포항향토문화사의 이해를 위한 동계 교사 직무연수를 가졌다.



포항문화원은 경상북도교육청 2008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승인 통보에 의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별로 유치원,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40명을 대상으로 포항의 향토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사, 세계사 교육의 토대라 할 수 있는 향토사, 지역사 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교사 직무연수의 주요 과목으로



연오랑 세오녀(延烏郎 細烏女), 일월신화(日月神話 포항1대학 배용일 초빙교수), 월월이청청(한국학춤보존회 포항회장), 칠포리 암각화(한국암각화학회 이하우 이사), 포항의 고인돌(동아대연구소 김용우 소장), 포항의 불교문화재(영일고 강호진 교사), 포항고전문학사시론(한동대 교양학부 김윤규 교수), 사물놀이 체험(경북도립국악단 김준휘 상임단원), 전통향수문화체험(국제전문아로마테라피협회 김기에 경주·포항교육실장), 전통차예절(차인회 김인순 회장), 포항지역 유적답사(동해중 황인 교사) 등 총30시간의 연수계획에 의한 교육일정을 마쳤다.

공주문화원

2009 신년교례회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은 1월 5일 오전 11시 문화원 강당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지역 유지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최선무용단의 '회관무'와 논두렁발두령의 '축원 덕담'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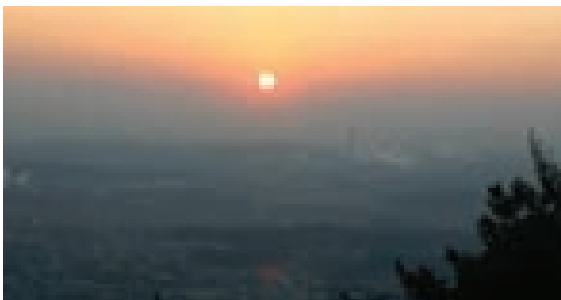
정재욱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운 인생 '을 이야기하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본인의 위상에 맞는 언행과 도리를 지켜나갈 때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고 역설하는 한편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정립을 위해 문화원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천문화원

기축년 새해맞이 행사

이천문화원(원장 이상구)은 새해 첫 아침에 이천시 주최로 설봉산 새천년의 탑 아래에서 기축년 해맞이 행사를 주관했다. 1월 1일 아침 7시부터 이천연합동문회와 이천청년회의소, 관고동통장단협의회, 풍물지기치레, 농협 이천시지부, 이천우체국이 함께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새해맞이 기원행사를 열었다.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 기원제 열려

지난 1월 10일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 고진섭 시의회위원장, 진대제 도시축전조직위원장, 시 본청, 군·구 간부공무원 등 2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집례는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맡았으며 칠선녀의 성무와 성화채화, 소망연 날리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위한 염원의 뜻을 함께 했다.



괴산문화원

기축년 해맞이 행사

괴산문화원(원장 이재철)은 1월 1일 오전 6시 30분 괴산C와 공동으로 군민회관을 출발, 진산을 등반하면서 2009 기축년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새해 아침에国泰민안과 소원성취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풍선 날리기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문화가족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료를 제공하였다.



예천문화원

예천아리랑 전승 보전 나서

예천문화원(원장 김종배)은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 오던 '예천아리랑'을 전승·보전하기 위해 예천아리랑의 유래와 아리랑의 의미, 가사와 악보를 비롯해서 노래가 담겨 있는 홍보책자 500권과 CD 및 DVD 500개를 제작, 관내 초·중·고교 및 기관단체에 보급하고 있다.

아리랑고개에서 김도령과 처녀가 사랑을 나누다 임신, 출산을 하고 김도령의 죽음에 따른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로 끝나는 '예천아리랑'은 이 고장 아낙네들이 힘든 농사일과 고된 시집살이를 할 때 마음을 달래느라 서러운 한을 콧노래로 흥얼거리던 소리가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현재 양옥교(92, 예천읍 통명리)할머니가 구전으로 전해 온 가사와 노래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통명농요기능보유자 이상 후 씨가 젊은 시절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불러오던 가사를 정리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예천군은 학교 교재뿐 아니라 축제, 문화제에 예천아리랑을 프로그램화하고 각급 민요강좌 등을 통해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09 제1차 이사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9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08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48차 정기총회를 1월 30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부의안건으로 2008년도 결산 승인과 2009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09 문화원 복지기금안을 비롯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리고 당연직 임원(각 시·도지회장)을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단과 이사 및 감사도 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최중수 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임원 여러분과 전국 지방문화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해 각종 사업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금년에도 국고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실버문화, 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어 각 지방문화원이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말했다.

2009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기무사 부지 내 강당에서 개최된 <2009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기무사 부지를 국립 미술관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각계의 문화예술인들과 직접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8 제3차 운영위원회

'문화원의 날' 및 '실버문화축제' 평가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2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연합회 7층 회의실에서 '문화원의 날' 및 '실버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08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종수 회장을 비롯하여 장재찬(위원장 양평) · 고상진(영등포) · 이원

달(서울 강동) · 김문경(구리) · 정정희(당진) · 서 승(전주) · 권창호(포항) · 김교승(구미) · 차관암(합천)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 회장은 지방문화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3일 동안 전주에서 열린 바 있는 2008 실버문화축제와 함께 치러진 제1회 '문화원의 날'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 등 현안문제를 위해서도 문화원장님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평가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내년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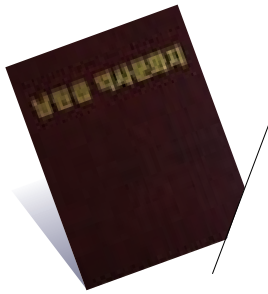
이날 회의의 주요 논점은 '문화원의 날'은 223개 문화원 전체가 참가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는 문제, 대회 홍보의 미흡, '문화원의 날'과 실버축제의 동시 개최로 의미가 희석된 점을 비롯하여 홍보관 운영의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다만 실버문화축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았다.

따라서 '문화원의 날'은 다른 행사와는 별도의 대규모 행사로 개최해야 할 것과 이에 따른 비용은 각 문화원 부담으로 하고 종합적인 행사 진행만 연합회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연합회에서는 전국 지방문화원이 '문화원의 날' 행사 참가를 하는데 대한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 등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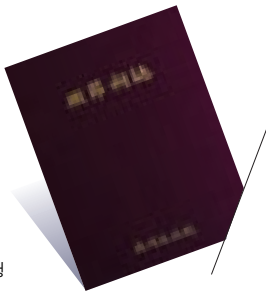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송병호 과장 부임.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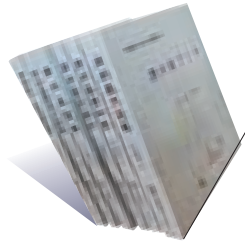
남원읍은 제주 동남부에 위치한 고장으로서 남원1·2리, 태흥1·2·3리, 위미1·2·3리, 하례1·2리, 신례1·2리, 한남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1·2리로 형성되어 있다. 남원읍의 지리적 환경과 특성, 곤충을 비롯한 육상동물의 특징, 식물 등 자연·지리편, 선사유적과 전근대시기 역사유적, 일제 강점기의 유적, 광복후의 유적 등 역사유적편, 마을의 형성과 변천편, 마을이름과 소지명편, 민요, 세시풍속, 통과 의례, 무형문화재, 민간신앙 등의 민속문화유산편, 지방선거·행정·교육·종교편, 농업·축산업·수산업·관광산업·목축문화에 이르기까지의 산업편 등 총 7편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 남원읍의 읍정현황을 실고 있다.



顯宗神廟誌

광주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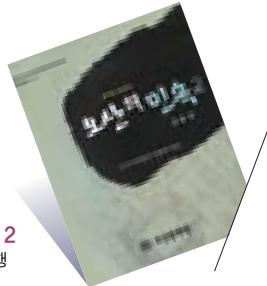
병자호란 때 오랑캐와의 화의를 배척하고 의리를 존중하여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다가 만주 심양에 끌려가 조선의 선비로서 절개와 충절을 지키다 순절한 삼학사(홍익환, 윤 집, 오 달제)와 항복을 반대했던 주전파의 거두 김상헌, 정 온, 두 충신을 함께 모시고 고훈을 숭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서 남한산성 동문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현절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력 9월 10일 광주·하남지역 유림의 주관으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이 책에는 현절사 제향 의례와 축문, 출기, 삼학사의 행상과 충절, 김상헌, 정 온의 행상에 대해 실려 있으며, 현절사 사단 정관도 부록에 실고 있다. 한편 광주문화원 이상복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삼학사의 순절을 현양하고 추모하는 정신이 시민들과 후세에 널리 이어가도록 계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濟州島方言集 / 濟州島生命調査書 / 濟州島關係文獻集 / 濟州島隨筆 / 濟州島昆蟲相 / 濟州島資料集

서귀포문화원 발행

제주도 5·16도로번 서귀포시 토평동 입구 소공원에 세워진 나비 박사로 잘 알려진 석주명(石宙明) 선생의 홍상이 서 있다. 평양에서 태어난 석 선생은 개성 송도중학교와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모교인 송도중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12년간 나비에 관한 논문 79편을 발표하는 등 연구에 몰두해 오던 선생이 제주와 인연을 맞게 된 것은 1936년 7, 8월 곤충채집을 위해 제주도를 다녀가면서부터였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43년부터 2년간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 책임자로 부임, 짧은 기간 그는 곤충뿐 아니라 제주도 자연, 동식물, 인문, 민속, 향토사, 제주도 방언연구 등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가 떠난 후 서울신문사 출판국에서 1947년 '제주도방언집'을 처음으로 출간했으며, 1949년에는 '제주도의 생명조사와 제주도관계문헌집'을 펴냈다. 그리고 1968년에는 그의 유고집인 '제주도 수필', 1970년 '제주도곤충상', 1971년 '제주도자료집' 등 모두 6권을 펴냈다. 그러나 유고집을 제외한 3권은 당시의 인쇄술이나 종이의 재질로 인해 퍼볼 수 없는 낡은 상태에 이르러 서귀포문화원에서는 2008년도 연구총서 발간사업으로 이를 복원하여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후학들에게 알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그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고인이 제주에 베푼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뜻에서 이 6권의 연구총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서귀포문화원 김병수 원장이 발간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오산의 민속 2

오산문화원 발행

'오산의 민속'은 오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간 이들과 살아 가고 있는 이들이 오산의 산천과 들녘에서 어떠한 의식과 풍속을 갖고 생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당이다. 따라서 '오산의 민속'에는 오산의 마을신앙, 오산의 민간신앙, 오산의 민간요법 등을 담고 있다. 오산에서 살아가던 조상들의 일상사와 그에 따른 갖가지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구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忠烈祠에 配享된 壬亂功臣 6位와 機張지역 7곳의 祠와 壇

기장문화원 발행

임진왜란 당시 기장을 포함한 부산지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을 모신 사당이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로서 본전에 배향된 89위의 봉안신 위 중에 기장지역 인물이 6위나 배향되어 있으며 철마면 구산단(龜山壇)에 2위, 의령사에 2위, 사정단(沙汀壇)에 1위, 일광면 영모제(永慕齋)에 1위를 사(祠)와 단(壇)으로 각각 모시고 있다. 한편 임란 당시 전쟁에 참여하고도 군공(軍功)누락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등을 별도로 제향을 드리는 7곳의 사와 단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하여 기장인의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역사를 밝히고자 총령사 본전에 배향된 6위의 인물과 기장지역 7곳의 사와 단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평택의 마을과 地名이야기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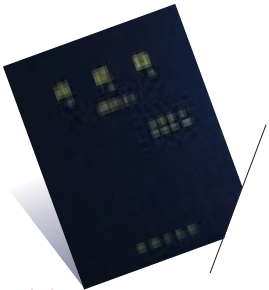
평택문화원 발행

평택의 마을과 지명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진위면과 포승읍, 청북면, 서탄면의 마을과 지명에 대해 기술해 놓고 있다. 평택문화원 오용원 원장은 이 책의 발간사에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 그리고 낭만과 해학이 전해져온다'고 말하면서 '지금쯤 보잘 것 없는 길가의 돌, 마을 앞 나무, 길가의 작은 보에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가뭄과 흉년을 이기고 험난한 삶을 헤쳐 온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애착과 설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들이 일일이 맺혀 있다'고 했다. '이렇듯 삶의 터전이었던 들판과 골짜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어 마을과 지명유래의 조사는 향토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조치원문화원 발행

연기군의 남면과 금남·동면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연기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 마을의 이름과 유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이웃과 둘러앉아 구전형식의 얘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문자형태의 보존방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군 8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동네 이름과 산, 하천, 고개, 골짜기, 개울, 우물, 나무, 바위, 창고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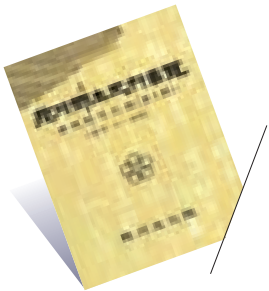
南槎錄 譯註(上)
제주문화원 발행

남사록은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이 1601년 7월 제주에서 발생한 김운절(吉雲節) 등의 모반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제주민을 회유하기 위한 안무어사로 임명되어 약 6개월간 제주방목기를 일기체로 쓴 글이다. 청음이 1636년(인조 14년) 예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여 청나라 심양으로 압송, 6년간 고초를 겪기도 했다. 1646년(인조 24년) 77세로 좌의정에 제수되고 1652년(효종 3년) 83세로 사망하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문정(文正)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남사록은 현재 세 본이 전해는데 그의 손자 곡음 김수증(谷雲 金壽增)이 지은 외유록(外遊錄)에 수록된 것과 규장각본, 그리고 판본이 아닌 영인본으로서 1977년 청음의 14대손인 김창현이 '청음선생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문까지 모아 영인한 '청음전집'으로서 별책으로 소개된 남사록을 역주 간행한 것이다. 제주문화원 조영철 원장은 발간사에서 '내년까지 상·하권을 간행하면 17세기 전후 제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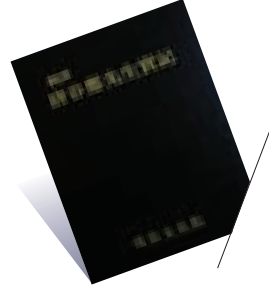
김성달 작가_조선의 살아있는 가족문학사
유성문화원 발행.

유성문화원은 2007년 양성평등지역문화 확산사업으로 18세기 초 대전의 여성 인물인 김호연재를 본격 조명하면서 그를 배출한 가족을 주목하게 되었다. 즉, 그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한 기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호연재의 부모인 김성달과 이옥재 부부는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제도 하에서 평등적 가치를 지닌 가정문화를 지향하였으며, 부부가 대등한 사이에서 답사를 나누고, 시 내기 바독을 두며 진 사람이 벌칙으로 시를 쓰고 꽃을 심어 그 꽃을 감상하며 함께 산책을 즐기는 등 상호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한 평등한 삶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탈권위적 부모상은 자녀들의 인성과 문학적 소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어 대전 여성인물인 호연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유성문화원 한근수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抱川鄕土史料叢覽_承政院日記編(第2輯)
포천문화원 발행

총 3,245책으로 되어 있는 승정원일기의 내용기문데 포천 지역과 관계가 있는 부분 중에서 그 분량이 방대하여 고종 11년부터 20년까지의 내용만을 발췌한 것이다.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은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이 격동기의 우리나라 근대사와 포천지역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포천이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의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후세에 전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간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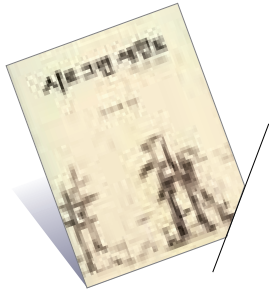
國譯 唐谷 鄭先生實記
함양문화원 발행

당곡 정희보(唐谷 鄭希輔) 선생은 1488년(성종 19년) 진양정씨 효충의 둘째 아들로 남해군 이동면 초곡에서 출생, 17세 때 함양군 수동면 당곡으로 이주하여 집필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 문효공 옥계 노 진, 문청공 청련 이후백, 구충암 양희, 덕계 오 건, 양곡 소세양 등의 청백리를 비롯해서 개암 강 익, 매촌 정복헌, 매암 조 식, 죽암 양홍택, 도탄 변사정 등의 명현들이 당곡의 문학생으로서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학맥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그동안 수 차례의 사회와 전쟁으로 훌륭한 인재가 희생되고 소중한 사료가 유실되어 유교문화의 명맥마저 희미해지면서 경제발전의 그늘에 가려 현대인에게 인성을 교육의 근간으로 하는 전통 유교문화의 발굴과 전파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곡 선생의 실기를 도덕적 기준과 정신문화의 지주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다.



돌마마을지(下)
성남문화원 발행

돌마지역은 성남시 중원구의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여수동, 분당구의 이매동, 아탑동, 서현동, 율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일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하대원, 갈현, 여수, 도촌, 이매, 아탑동 지역은 삼권에 소개한 바 있고, 하권에서는 분당구 서현동, 율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고장의 역사와 지명의 유래, 민속, 세가문 중과 문화유산, 역사인물, 주요행정, 교육, 문화시설, 경제활동 등을 기록해 놓았다. 도시발전에 따라 오랜 세월 거주해온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전통마을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정겨운 땅 이름의 유래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그대로 전승되고 가꾸어져 새로운 역사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성남문화원 한춘식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다행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시로 그린 세한도(歲寒圖)
과천문화원 발행

추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과천문화원 최중수 원장은 발간사에서 '시인이자, 학자요, 예술가인 추사 선생은 충남 예산이나 제주 대정, 그리고 과천만의 추사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인 모두가 그 예술혼을 흠모하고 엄정한 실사구시의 학문정신을 배우고 익힐 때, 우리 사회는 한결 건강할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편 이 책을 엮은 이근배 시인은 발문 '〈세한도〉에 바친다'에서 최중수 회장으로 부터 많은 시인들이 추사와 〈세한도〉를 두고 쓴 시편들을 골라보라는 부탁을 받고 그 뜻에 감복하여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고 겸손해하면서 추사와 〈세한도〉가 이 땅의 시에 대주는 영감의 물결이 얼마나 멀고 깊은 것인가를 새삼 깨우쳤으며 한편 한편이 산을 흔들고 땅을 적시는 감동의 명시들이어서 이것은 현대시 100년에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헌사요, 오늘의 시가 내뿜는 절정과 진수의 총집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산의 구비전승 1
오산문화원 발행

오산시의 지명유래를 비롯하여 각 성씨의 족보상에 나타난 기록들을 바탕으로 성씨의 정착에 대해서도 동네마다 전승되고 있는 설화와 풍습, 민요와 놀이에 이르기까지 옛 이야기와 옛 놀이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오산(烏山)'은 한자풀이로 보면 까마귀 산을 뜻하지만 실제로 오산에 까마귀가 많았거나 까마귀와 관련된 옛 문헌이나 일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예로부터 마을이 형성되면서 주위의 산이나 하천, 주변 풍경을 통해 마을의 이름이나 땅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산의 순 우리말 이름은 '검은 산'이라는 뜻을 지닌 '까만 뽕'가 '까마 뽕'로 변하면서 오산의 지명이 순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용산의 역사문화여행
용산문화원 발행

용산에 산재해 있는 역사현장인 유적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일반설명을 덧붙여 재미있는 역사문화 공간이 되도록 이해를 돕고, 도심공원의 특색과 그 역사 문화적 의미를 되새겨 용산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번호로 9호인 용산향토시료편람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제1장에서 효창공원과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용산수위관측소, 서빙고동부군당 등 시지정문화재, 남이장군사당, 김유신장군사당 등 향토문화재를 비롯한 군자감터, 심원정터, 한강진 니루터 등의 기타 문화재, 그리고 박물관 및 기념관, 한강시민공원 등 도심의 휴식 공간, 공원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산 성신대제연구
마산문화원 발행

3백여 년 전부터 마산지역에 구전되어 오고 있는 성신대제(星神大祭)를 복원하고자 2006년 8월부터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 학술발표회를 거쳐 온 마산문화원이 그동안 6명의 학자들이 조사·발표한 논문 중 '성신대제의 역사적 연원과 제당 연구', '마산 어시장 성신대제 주제집단과 제의 형식의 변화', '성신제의 제의과정 연구', '마산오광대의 연희양상과 특성연구' 마산의 지역특성과 성신대제 복원의 의미', '마산지역의 문화축제와 성신대제' 등과 함께 '마산 성신대제'와 '마산오광대' 연희대본을 부록에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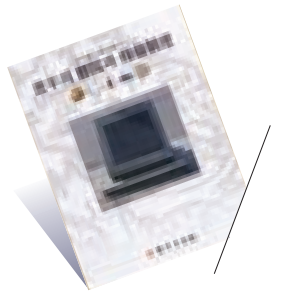


國難을 克服한 高興의 일
고흥문화원 발행

1779년(정조 23년)에 지방사료집으로 발간한 호남절의록에 게재된 고흥출신 순절(殉節)제공 및 거의(義)제공, 고흥군지에 실려 있는 충훈과 절의제공, 총 251명을 발췌하여 게재한 사료집이다.

임진왜란 7년간 전라좌수영 관하 충무공 막사에서 군관으로 활동했던 분 중 전라지역 23개 읍 가운데 고흥출신이 69명으로 전체의 23%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충의의 고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69명의 임진난 공신과 갑자의적, 정묘의적, 무신의적 등 88명을 수록하고 그 외에 고흥군지에 수록된 분을 발췌하면서 3·1운동 이후에도 참여하여 고흥군지에 실려 있는 163명 등 총 251명에 대한 인물 내역을 원전과 함께 수록해 놓았다.



恩平의 驛驛과 烽燧制度
은평문화원 발행

서울 은평구는 역촌동의 연서역과 구파발의 검암참(黔岩站) 등 역참유적과 구산동의 봉산(蜂山)봉수대, 진관동의 덕수원, 미륵원, 녹번동의 양철원 등 많은 원관(院館)이 있었다.

파발군이 말을 타고 공문서를 전달하던 기발(騎撥)과 뛰어가서 공문서를 전하던 보발(步撥)이 있다. 구파발 검암참은 서발, 남발, 북발 중 기발의 첫 번째 역사로 기발이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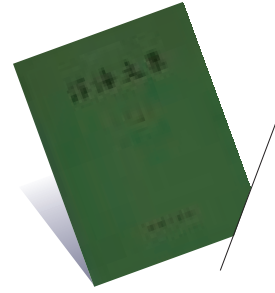
따라서 이 책은 조선시대 파발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浮海文集

제주문화원 발행

부해 안병택(浮海 安秉宅)은 1861년(철종 12) 조천읍 조천리에서 인달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스승인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은 전라도 장성에서 기호학파의 가통을 이은 사람으로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의 손자로 호남 의병장 송사기 우만(松沙 奇守萬)과 뜻을 같이 했으며 제주의 고시훈, 김형식, 김석익, 김군배 등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부해문집의 저본은 '부해만고(浮海漫稿)로서 이번에 역주 간행한 이 책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상·하 두권으로 영인하여 간행한 영인본과 거기에 누락된 한 권 및 최근에 발견된 한 권의 시만을 모은 것으로서 부해의 도화사상과 구국정신, 문학관은 물론 경술국치 전후 제주 항일운동의 내면을 비롯해서 신구 사조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강임원 시집

강임원 시인은 현재 서울 동대문문화원 시무직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아프고, 춥고, 외로운 것은 다쳐서도, 빛이 없어서도, 곁에 누가 없어서도 아니다. 다만 내속에 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아실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그만큼 그의 시를 대하노라면 외모에서 풍기는 투박함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린 마음씨를 엿보게 한다.

신광호 시인도 '강임원의 시 세계에 부처' 라는 서평에서 '겉으로 보아온 들쭉하고 진국이라 할 그가 현대의 모순과 슬픔을 카타르시스하려는 의도' 라고 평할 만큼 그는 스스로 말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손때 묻어 정이 든 것들을 사랑하려 하지만 번번이 상처만 안고 돌아선다' 고 말한다. 순박한 두메 소년의 모습 그대로 항상 우리 곁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원 장 동 정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고창문화원장 송영래 씨

고창문화원은 지난 11월 24일 문화원 2층 영화관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3명의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최다 득표를 한 송영래(宋榮來 77)씨가 제7대 원장에 선임되었다.

12월 29일 고창읍 우성예식장에서 이강수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김갑성 부의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이복웅 전라북도지회장을 비롯하여 전라북도의회 및 고창군의 회 의원, 도내 문화원장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송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배가 운동과 함께 여성과 젊은 층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문화원 임원 구성에 있어 남녀노소가 공존하는 문화원을 만들어 지역문화의 중심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임 송 원장은 한국예총 고창지부 회장과 재단법인 미당시문학관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전북역사문화학회 고창지회장과 성균관 유도회 고창지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안문화원장 김성한 씨

무안문화원은 지난 11월 24일 무안읍 송달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김성한(金 晟翰 73)씨를 신임 원장에 추대했다.

금년 1월 15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원강 전라남도지회장과 서삼석 무안군수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김이기 사무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문화원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대 원장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무안문화를 이끌어 나갈 이 고창 문화원장의 책무를 지고 맡겨진 막중한 소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많은 참석 내빈 앞에서 각오를 다졌다.

김성한 원장은 전남대 행정대학을 수료하고, 무안군 기획감사실장으로 정년퇴임을 한 후 문화원 이사로서 문화원 운영에 참여해 왔다.



단양문화원장 권혁호 씨

단양문화원은 지난 12월 19일 단양군평생학습센터에서 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2명의 후보자가 경선한 가운데 과반수를 득표한 권혁호(權赫湖 50)씨를 제11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권 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단양문화원이 더욱 생동감 있는 문화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의 일단을 밝혔다.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한 권 원장은 바르게살기단양군협의회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신단양지역개발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전국 240개
지역을 다니며 문화를 통해
희망과 웃음을 전하는 매개자가 되고 있다.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서산 고북면 공연 모습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기간_ 8.7-10.25

개최장소_ 인천 전역 (주행사장 : 송도국제도시)

주최_ 인천광역시

주관_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후원_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mke 지식경제부 mev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식후원사_ 신한은행 posco&c 한화건설

dcc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www.incheonfair.org



INCHEON

2009
GLOBAL FAIR &
FESTIVAL